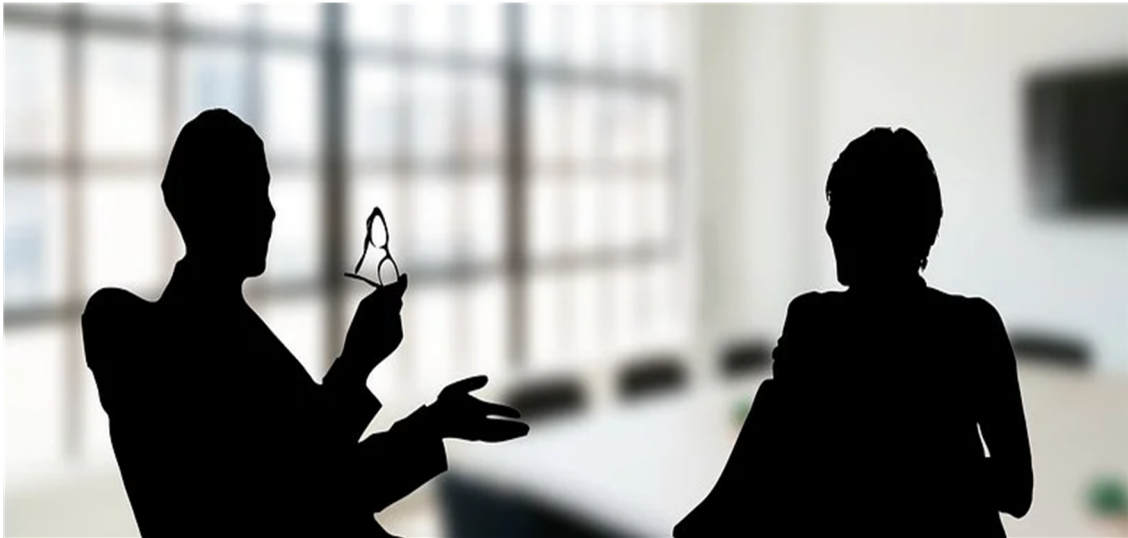


이 세상에 없던 교재.
그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원해, 국어

Project 기원

화법



[화법 - 다수 화자] 대화, 토의, 협상, 인터뷰 등

유형 D - 말하기 방식

: 최근 5년, _____% 출제

: 정답률 분포: _____.% ~ _____.%

: 평균 정답률 분포는 약 _____%의 정답률이야.

★ 정확한 것을 빠르게 푸는 것이 아주 중요함.



내용	페이지
어원(어휘 정리)	4
원 페이지 정리	9
고3 21년 06월 평가원 38번, 39번	10
고3 21년 09월 평가원 41번	11
고3 20년 06월 평가원 A형 5번	12
고3 20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13
고3 20년 12월 수능 4번	14
고3 19년 06월 평가원 7번	15
고3 19년 09월 평가원 4번	16
고3 19년 11월 수능 5번	17
고3 18년 06월 평가원 A형 5번	18
고3 18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19
고3 18년 11월 수능 6~7번	20
고3 17년 06월 평가원 A형 4번	21
고3 17년 09월 평가원 A형 7번	22
고3 17년 11월 수능 A형 4~5번	23
고3 16년 06월 평가원 A형 4번	24
고3 16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25
고3 16년 11월 수능 A형 3~4번	26
고3 15년 06월 평가원 A형 1번	27
고3 15년 06월 평가원 B형 1번	27
고3 15년 09월 평가원 A, B형 1번	28
고3 15년 09월 평가원 B형 3번	29
고3 15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30
고3 15년 11월 수능 1번	30
고3 14년 06월 평가원 A형 3번	31
고3 14년 06월 평가원 B형 1번	32
고3 14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33
고3 14년 09월 평가원 B형 3번, 4번	34
고3 14년 11월 수능 A형 1번	35
고3 13년 06월 평가원 B형 3번	36
고3 13년 06월 평가원 B형 4번	36
고3 13년 09월 평가원 A형 3번	37
고3 13년 09월 평가원 B형 1번	37
고3 13년 09월 평가원 A, B형 4번	38
고3 13년 11월 수능 A형 3번	38
고3 13년 11월 수능 B형 2번	39
고3 13년 11월 수능 A형 1번	39



[화법]

다수 화자

유형D - 말하기 방식



[주요 기출 핵심어 & 선지 분석]

one point 선지에 많이 등장하는 발화자 중심으로 선지 분석하여 정답 판별

I 어휘원해 - 주요 어휘 & 어려운 어휘 정리 / 어려울 게 크게 없어. 어휘를 몰라서 틀리지.

주요 어휘

어휘	출제 횟수	어휘	출제 횟수	어휘	출제 횟수	어휘	출제 횟수	어휘	출제 횟수
의견	41	3번	17	4번	15	주장	10	토의	9
1번	37	설명	17	면접	14	참여	10	판단	9
질문	36	이해	16	반대	13	해결	10	경험	8
제시	34	추가	16	발언	12	해설	10	대화	8
확인	30	표현	16	상황	12	반응	9	6번	8
2번	23	근거	15	5번	12	생각	9	인정	8
진행	21	요구	15	강조	10	요약	9		
답변	18	요청	15	방식	10	의도	9		

- [고3 21년 09월 평가원 41번] 체육 시설 설치가 실현 가능성이 낮음을 들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_____이다.
@ 소리를 내어 말을 하는 현실적인 _____ 행위
- [고3 21년 06월 평가원 38번] 상대가 _____한 신문 기사의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상대에게 요청하고 있다.
@ 어떤 문제에 대하여 _____하다.
- [고3 16년 06월 평가원 A형 4번] 특정 _____의 단점을 언급한 후 다른 방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일을 처리해 나갈 _____이나 계획.
- [고3 21년 06월 평가원 39번] 상대에게 바라는 행동을 _____한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고, 구체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안이나 _____으로 내놓다.
- [고3 19년 06월 평가원 7번] 상대방이 _____할 수 있는 의견을 _____하며 의견의 _____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 의견이나 문제를 _____놓음.
@ 사실이 아니거나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_____로 _____함.
@ 사물의 이치에 맞는 _____ 성질.
- [고3 19년 11월 수능 5번] 반대 2는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합한 _____를 요구하고 있다.
@ 어떤 일이 전에 _____로 일어난 _____.



어려울 수 있는 어휘

1. [고3 21년 06월 평가원 38번] _____의 원인을 묻는 상대에게 신문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답하고 있다.
@ 문제가 되는 _____이나 안. / 토의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_____
2. [고3 21년 06월 평가원 38번]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며 상대와 다른 _____를 드러내고 있다.
@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기의 _____이나 생각.
3. [고3 21년 06월 평가원 38번] 자신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반복하며 _____을 제시하고 있다.
@ 두 가지 이상의 안을 서로 보충하여 알맞게 _____한 안.
4. [고3 21년 06월 평가원 39번] 상대에게 _____를 _____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고, 상대의 정서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 무엇을 하고자 하는 _____.
@ 뚜렷하고 _____하다.
5. [고3 21년 06월 평가원 39번] 상대에게 원하는 바를 _____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고, _____의 방식으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어느 _____으로 치우친 것.
6. [고3 21년 06월 평가원 39번] 자신의 상황을 내세워 상대의 요구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고, 상대에게 _____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_____시키거나 보조를 맞춤.
7. [고3 20년 06월 평가원 5번]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 중 일부를 _____하여 ‘학생 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_____ 이야기함.
8. [고3 20년 06월 평가원 5번] ‘학생 1’은 자신의 _____과 _____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_____나 방향 또는 처지.
@ 서로 _____되거나 어긋남.
9. [고3 20년 06월 평가원 5번] ‘학생 3’은 ‘학생 2’가 한 말을 요약하며 ‘학생 2’의 견해가 지닌 _____를 드러내고 있다.
@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 작용할 수 있는 _____.
10. [고3 19년 06월 평가원 7번] 상대방과 _____하고 있는 정보에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 두 사람 이상이 물건 따위를 _____으로 _____함.
11. [고3 19년 09월 평가원 4번] 학생은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하여 다시 질문하고 있고, [B]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 중 일부 내용을 _____하여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12. [고3 19년 11월 수능 5번] 찬성 1은 상대측의 _____에 대해 반박하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 _____을 내놓음.



13. [고3 19년 11월 수능 5번] 반대 1은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_____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를 통해 향후 _____을 제시하고 있다.
@ 사물이나 말 따위가 생기거나 나온 _____.
@ 앞날을 헤아려 내다봄. 또는 내다보이는 _____의 상황.
14. [고3 18년 06월 평가원 A형 5번] _____되는 문제 상황을 들어 _____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근심하거나 _____함.
@ 어떤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내어 _____함.
15. [고3 18년 06월 평가원 A형 5번]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_____하며 상대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_____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함.
16. [고3 18년 06월 평가원 A형 5번] 상대에게 _____ 방식으로 상대의 질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를 확인하고 있다.
@ 동일한 질문을 다시 하다. / 물음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_____ 묻다.
17. [고3 18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반대 1'은 _____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토론에서 _____으로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단계
18. [고3 18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반대 2'는 _____에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지적하여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하고 있다.
@ 입론에 대한 _____ 의견을 말하는 토론의 한 단계
19. [고3 18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반대 1'은 반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_____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어떤 사항을 논제로 삼아 제기하거나 논의함. = _____하다
20. [고3 18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찬성 1'은 반론에서, 상대방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_____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⁵ (對案) 어떤 일에 _____할 방안. / □□³ (代案) 어떤 안(案)을 _____하는 안.
21. [고3 18년 11월 수능 6번] 상대의 제안은 _____에서 강조하려는 바와 달라지게 한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발화이다.
@ _____을 보고 들은 그대로 적은 글. / 흔히 _____를 의미한다.
22. [고3 18년 11월 수능 6번] _____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본문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 _____하게 어울림.
23. [고3 18년 11월 수능 6번]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작성에 대해 논의했던 사항이 무엇인지를 상대에게 _____하는 발화이다.
@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_____일으킴.
24. [고3 18년 11월 수능 6번] 글의 분량을 언급한 상대의 의견에 대해 _____의 크기를 이유로 들어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는 발화이다.
@ 기사나 글이 실리는 인쇄물의 _____
25. [고3 18년 11월 수능 6번]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_____하는 상황에서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의견이나 처지, 속성 따위가 서로 _____되거나 모순됨



26. [고3 18년 11월 수능 6번]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은 비판하고 있고, ‘학생 1’의 의견은 _____ 하고 있다.
@ 어떤 사람이나 단체 따위의 주의·정책·의견 따위에 _____ 하여 이를 위하여 힘을 쓰다.
27. [고3 18년 11월 수능 6번]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_____ 하고 있다.
@ 어떠한 것을 _____ 들이다.
28. [고3 16년 11월 수능 A형 3번] ‘찬성 1’은 기존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_____ 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 기_____ 할 수 있는 _____ 과.
29. [고3 16년 11월 수능 A형 3번] ‘반대 1’은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_____ 을 강조하고 있다.
@ 시각을 다들 만큼 절박하고 _____ 한 상태의 성질.
30. [고3 16년 11월 수능 A형 3번]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가 _____ 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합한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_____ 다.
31. [고3 16년 11월 수능 A형 3번]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기존 방식을 _____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차지한 물건이나 형세 따위를 굳게 _____ .
32. [고3 16년 11월 수능 A형 3번] 모두 상대측이 _____ 한 전문가의 설명이 적합한지 따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 남의 말이나 글을 자신의 말이나 글 속에 끌어 _____ 씀.
33. [고3 15년 06월 평가원 A형 1번] _____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언어가 아닌, 의사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데 쓰이는 몸짓, 손짓, 표정 따위의 신체 _____ 을 통틀어 이르는 말.
34. [고3 15년 09월 평가원 B형 3번] 의제 _____ 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 의견이 대립된 양면에서 서로 양보하여 일을 _____ 함.
35. [고3 15년 09월 평가원 B형 3번] _____ 인 질문을 통해 갈등 상황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서로 연결되어 관련이 있는 것. (= _____)
36. [고3 15년 09월 평가원 B형 3번]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에 _____ 하여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 어떤 일에 참여하도록 마음이나 감정 따위를 _____ 일으키다.
37. [고3 15년 11월 수능 1번] 진행자는 _____ 의 취지를 밝히며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마주 대하고 _____ 함.
38. [고3 15년 11월 수능 1번] 해설사는 _____ 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 연구의 자료가 되는 _____ 이나 문서.
39. [고3 14년 06월 평가원 B형 1번] ‘면접자’는 ‘피면접자’의 심리적 부담을 _____ 하려는 표현을 사용하며 질문하였다.
@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_____ 하게 함.
40. [고3 14년 06월 평가원 B형 1번] ‘피면접자’는 말하려는 내용을 강조하는 _____ 적 표현을 활용하여 답변하였다.
@ 억양이나 세기, 강세를 두는 위치, 말하기의 빠르기나 음의 고저 따위를 말한다.



41. [고3 14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상대방의 말에 _____함을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 옳다고 _____함.
42. [고3 13년 06월 평가원 B형 3번] ‘고택 주인’은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_____적인 질문을 하였다.
@ 의문의 형식으로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의미(자신의 감정)를 강조하는 표현법
43. [고3 13년 09월 평가원 A형 3번] 연구원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주 정거장에서의 생활을 지구에서의 생활에 _____ 설명하고 있다.
@ 둘 이상의 사물을 질(質)이나 양(量) 따위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기 위하여 서로 대어 보다. = _____하여
44. [고3 13년 09월 평가원 B형 1번]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_____을 정리하고 있다.
@ 서로 _____중심이 되는 _____.



I One page

one point 선지에 많이 등장하는 발화자 중심으로 선지 분석하여 정답 판별

주요 어휘

1. 발화		5. 제기	
2. 언급		6. 가정	
3. 방안		7. 타당성	
4. 제안		8. 사례	

어려울 수 있는 어휘

1. 사안		21. 기사문	
2. 견해		22. 화합	
3. 절충안		23. 환기	
4-1. 의사		24. 지면	
4-2. 명료		25. 대립	
5. 일방적		26. 지지하다.	
6. 동조		27. 수용하다.	
7. 재진술		28. 기대효과	
8-1. 관점		29. 시급성	
8-2 상반		30. 적합	
9. 한계		31. 고수하다	
10. 공유		32. 인용하다	
11. 반복		33. 비언어적	
12. 이의 제기		34. 타결	
13-1. 출처		35. 연쇄적	
13-2. 전망		36. 호소하다	
14. 우려		37. 대담	
14-2. 논의		38. 문헌	
15. 지적하다		39. 완화하다	
16. 되묻다.		40. 반언어적	
17. 입론		41. 수긍하다	
18. 반대 신문		42. 설의적	
19. 거론하다.		43. 견주다	
20. 대안		44. 쟁점	

one point 선지에 _____ 등장하는 _____ 중심으로 선지 분석하여 정답 판별



고3 21년 06월 평가원 38번, 39번

[38~41] (가)는 학생들의 대화이고, (나)와 (다)는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률 92.0%]

1)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학생 1: 이번 과제가 ‘공동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글을 써서 독자와 공유하기’잖아. 과제에 대해 생각 좀 해 봤어?

학생 2: 의류 수거함에 대해 쓰려고 자료 찾아보고 있어. 너는?

학생 1: 나도 의류 수거함 생각했는데. 잘 됐다. 찾은 자료 나한테 전자 우편으로 보내줘.

학생 2: 음..., 주는 건 어렵지 않은데 네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서 좀 당황스러워. [A]

학생 1: 미안해. 기분 상하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 나도 자료 준비되면 줄 테니까 공유 좀 부탁해도 될까?

학생 2: 알겠어. 그렇게 하자.

학생 1: 그런데 넌 왜 의류 수거함에 대해 쓰려고 해?

학생 2: 평소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학교 친구들도 수거함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

학생 1: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거함이 망가진 채 방치된 데다가 수거함 주변에 옷들이 버려져 있잖아.

학생 2: 맞아. 의류 수거함 주변이 쓰레기장이 되고 있어. 수거함에 수거 대상이 아닌 물품과 쓰레기들도 많고. 너는 수거함이 그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학생 1: ㉠얼마 전 신문 기사를 봤는데 ㉡시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지만 시청이 적극 노력해서 잘 해결했다는 걸 보면 우리 시청의 대처가 미흡해서인 것 같아.

학생 2: ㉢시청은 어떤 노력을 한 거야?

학생 1: 파손된 수거함을 수리하고 시민들에게 올바른 수거함 사용법을 알리는 캠페인도 했다.

학생 2: ㉣그러니까 네 말은 우리 시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게 원인이라는 거지?

학생 1: 맞아. 공공의 문제 해결에는 시청의 영향력이 크니까.

학생 2: ㉤그 말도 맞지만 이용자의 탓이 더 크지 않을까? 아무리 시청이 관리를 잘 해도 이용자들이 함부로 사용하면 궁극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학생 1: 하지만 시청이 수거함의 올바른 이용 방식을 안내하는 게 먼저 아닐까? 안내대로 의류를 올바르게 배출하면 선별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잖아.

학생 2: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용자부터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다르게 접근하는구나. 그럼 해결 방안을 구상해서 각자 글을 써 보자.

학생 1: 좋아. 나는 시청 누리집 게시판에 시청의 조치를 촉구하는 글을 올릴 거야.

학생 2: 그러면 나는 우리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글을 써서 학교 신문에 실어야지.

학생 1: 좋아. 그렇게 하자.

(나) 학생 1의 초고

(다) 학생 2의 초고

- ① ㉠: 사안의 원인을 묻는 상대에게 신문 기사 내용을 근거로 답하고 있다.
- ② ㉡: 상대가 언급한 신문 기사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를 상대에게 요청하고 있다.
- ③ ㉢: 사안의 원인에 대한 상대의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의견을 인정하며 상대와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반복하며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답률 94.0%]

2) [A]의 학생 1의 발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에게 바라는 행동을 제안한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고, 구체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있다.
- ② 상대와의 의견을 최대한 일치시킨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고, 세부 내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상대에게 의사를 명료하게 드러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고, 상대의 정서에 적극 공감하고 있다.
- ④ 상대에게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요구한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고, 질문의 방식으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상황을 내세워 상대의 요구를 일부만 수용한 것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고, 상대에게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고3 21년 09월 평가원 41번

[40~41] (가)는 시정 소식지에 실린 글이고, (나)는 소식지 발행 이후에 개최된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정 소식지 8월호(발행일:20△△. 8. 1.)

신설 주민 복지 센터의 공간 활용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우리 시에서는 새로 건립되는 주민 복지 센터의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Y동과 Z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 이번 의견 수렴은 사전에 선정된 몇 가지 방안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 파악을 목적으로 하며, 8월 9일부터 16일 사이에 시청 누리집 '시민 게시판'에 접속해서 참여할 수 있다.

지금까지 Y동과 Z동은 인근 세 개의 동과 주민 복지 센터를 함께 이용해 왔다. 그러나 Y 동과 Z동은 다른 동들에 비해 기존의 주민 복지 센터와의 거리가 멀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해당 두 동의 인구 증가로 현재의 주민 복지 센터로는 이용량을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기존 주민 복지 센터를 확장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시청에서는 두 동을 위한 주민 복지 센터 신설을 추진해 왔다.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청에서 Y동의 부지 한 곳과 Z동의 부지 한 곳을 후보지로 뽑자, 둘 중 어느 곳이 건립 부지로 더 적절한지에 대해 주민들 간에 의견 차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에서는 양측의 주민 대표와 함께 첫 협상의 자리를 가졌고, 부지의 면적, 인구 규모를 고려하여 Z동 부지에 새 주민 복지 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양보를 한 Y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새 주민 복지 센터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다.

시는 3층 규모의 해당 센터를 노인 복지 공간(1층), 육아 지원 공간(2층)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주민의 요구가 다양한 3층 공간은 의견 수렴을 통해 도서관, 주민 영화관, 체육 시설 중 주민 선호도를 파악하여 활용 방안을 결정한다. 두 동의 의견 수렴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이달 30일에 후속 협상을 진행하여 3층 공간 활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의견 수렴 결과는 두 동 대표에게 전달된다.

(나)

시정 담당자: 오늘은 Z동에 신축할 주민 복지 센터 3층 공간 활용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협상에 이어 후속 협상에도 참여해 주신 Y동 대표님과 Z동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Y동 대표: 우리 동은 학령 인구의 비율이 높지만 아이들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시청의 선호도 조사에 서도 우리 동 주민들의 1순위는 도서관이었습니다. Z동에 주민 복지 센터가 지어지는 만큼 3층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동의 의견을 따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Z동 대표: 우리 동에서도 도서관을 선호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은 중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아 체육 시설의 필요성이 더 큼니다. 선호도 조사에서도 체육 시설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체육 시설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A]

Y동 대표: 저희도 Z동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저희 동의 체육 시설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Z동의 중장년층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복지 센터에 도서관을 만들면 두 동에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추게 되어 모두에게 이득이 되지 않을까요?

Z동 대표: 물론 두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Y동의 체육 시설과 우리 동 사이의 거리가 멀고 교통편도 불편합니다. 주민 복지 센터로 연결되는 신설 버스 노선이 체육 시설에도 연결되도록 조정하는 추가 조치도 있어야 합니다.

시정 담당자: 그 문제는 버스 회사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이고, 조정도 쉽지 않습니다.

Z동 대표: 그러면 체육 시설을 통한 수익 증가가 예상되는 Y동에서 비용을 부담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Y동 대표: 이번 협상을 준비하면서 우리 동에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체육 시설에서 운영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Z동까지 운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Z동 대표: 그뿐만 아니라 Y동의 체육 시설 이용료는 기존 복지 센터 내 체육 시설 이용료보다 비쌉니다. ㉡Y동 입장에서는 이용자 증가로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동 주민들은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것이므로 요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 주십시오.

Y동 대표: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에 동의해 주신다면 Z동 주민에게 우리 동 주민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 할인을 적용하겠습니다.

Z동 대표: 네, 동의하겠습니다.

시정 담당자: 그럼 3층에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세부 추진 방법은 차후에 논의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률 89.0%]

3) 협상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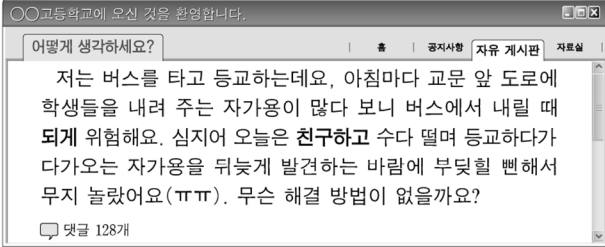
- ① ㉠은 도서관 설치와 관련해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여 상대의 제안과 절충을 시도하는 발화이다.
- ② ㉠은 체육 시설에 대한 상대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여 자신의 제안을 조정함으로써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발화이다.
- ③ ㉡은 체육 시설 설치가 실현 가능성이 낮음을 들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발화이다.
- ④ ㉡은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상대의 요구 사항을 언급하며 자신이 양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는 발화이다.
- ⑤ ㉡은 체육 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상대의 이익과 자신의 부담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발화이다.



고3 20년 06월 평가원 A형 5번

[4~5] (가)는 한 학생이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린 글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회 학생들이 나는 대화이며, (다)는 학생회 학생들이 작성한 건의문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 학생 1: 어제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 봤어?
 학생 2: 아, 등갯길 문제?
 학생 3: 나도 봤어. 조회 수도 엄청나고, 댓글을 보니 공감하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
 학생 1: 그래서 말인데, 안전한 등갯길을 만들기 위해 학생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써서 게시하는 건 어때?
 학생 3: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생각이야.
 학생 1: 내 생각엔 첫째로, 일단 학생들이 학교 올 때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자고 제안하면 좋겠어.
 학생 2: 그런데, 자가용 등교는 대부분 사정이 있는 거 아닐까? 다리를 다쳤거나 집이 너무 멀거나 하는.
 학생 1: 내 기억에 차에서 내리는 애들 중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집도 멀지 않은데 차 타고 오는 애들도 많이 봤다.
 학생 3: 어떤 방법으로 학교에 오든 그건 개인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 아닐까?
 학생 1: 그렇다 해도 댓글 보면 많은 애들이 자가용 등교 때문에 등갯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는 건 분명해 보여. 누군가의 선택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
 학생 2: 그렇다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애들까지 자가용 등교를 미안해하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학생 3: 그럼 글 쓸 때 이런 경우는 이해해 주자고 따로 언급하는 건 어때?
 학생 1: 그 정도면 괜찮겠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남은 물론 자기한테도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 주면 좋겠어.
 학생 3: 응.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가용 등교 때문에 위험했던 적이 있는 학생들은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해 주자. 실제 자가용 등교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자료도 찾아 제시하고.
 학생 2: 그래. 그럼 이제 등갯길 안전을 위해 추가로 제안할 게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아, 등갯길에 주변을 살피며 걸어야 한다는 건 어때?
 학생 1: 나도 너하고 같은 생각 했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학교 게시판에 올려 보자.

(다)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28대 학생회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등갯길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안전했나요?

㉠최근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처럼, 여러분도 학교에 올 때 누군가 등교에 이용한 자가용으로 인해 놀라거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가용 등교는 자신의 등갯길은 편하게 해 주지만 다른 학생들의 등갯길을 혼잡하고 위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경찰서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지역 학교 앞 교통사고 발생률은 일과 시간과 대비하여 등교 시간에 67% 정도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타고 온 차도 다른 학생들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앞 도로는 유난히 좁다 보니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경우도 많아 몹시 위험합니다.

㉣물론 걷기가 불편하거나 집이 많이 먼 경우는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안전한 등갯길을 위해 우선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등갯길을 만들려면 주변을 살피며 걷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휴대전화를 보거나 이어폰을 꽂고 걷다 보면 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차에 놀라며 걷는 대신 친구와 함께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교문을 들어서는 아침 풍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자가용을 이용할 필요가 없게 부지런히 등교 준비를 하다 보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전한 등갯길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러려면 자가용 이용은 자제하고 주변을 살피며 걸어 주세요. 다 함께, 평화로운 등교 장면을 상상이 아닌 현실로 만듭시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월 △일
 ○○고등학교 학생회

[정답률 83.8%]

4)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발화를 듣고 자신이 확인한 주변 상황을 근거로 들어 '학생 2'의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발화 중 일부를 재진술하여 '학생 1'이 제시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 1'은 자신의 관점과 상반되는 다수의 생각을 언급하며 자신의 의견이 지닌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B]에서 '학생 3'은 '학생 2'가 한 말을 요약하며 '학생 2'의 견해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A], [B] 모두에서 '학생 2'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학생 1'의 의견에 대해 추가로 생각할 점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고3 20년 12월 수능 4번

[4~5] (가)는 비평문 쓰기 모둠 활동 중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비평문 쓰기 모둠 활동

- [활동 1]: 모둠 활동을 통해 비평문에서 다룬 현안과 관점 정하기
- [활동 2]: 우리 학교 학생들을 예상 독자로 하여 [활동 1]의 결과를 바탕으로 초고 작성하기

(가)

- 학생 1: 오늘은 내가 모듬장할 차레니까 진행해 볼게. 지난번에 비평문에서 다룬 현안에 대해 각자 찾아보기로 했잖아. 의견 나눠볼까?
- 학생 2: 그래, ㉠시사성이 있으면서도 우리 학교 학생들도 고민해 볼 만한 현안을 다루기로 했었지?
- 학생 3: 맞아.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독서 실태 개선으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 학생 2: ㉡근데 그건 교지에서 다룬 적이 있어서 내용이 겹치지 않을까?
- 학생 3: 그러네. 그럼 어떤 걸로 하지?
- 학생 1: 얼마 전에 읽은 신문 기사 중에 장소의 획일화에 대한 내용이 인상적이었거든. 그건 어때?
- 학생 2: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줄래?
- 학생 1: 응. 장소가 본모습을 잃고 다른 장소와 유사하게 변한 것을 말해.
- 학생 3: 그렇구나. 우리 학교 근처에 있던 골목길도 다른 지역과 비슷한 ○○ 거리로 변해 버렸잖아. 우리의 추억이 깃든 장소인데. ㉣이것도 장소의 획일화 아닐까?
- 학생 1: 그래, 그게 장소 획일화의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 학생 2: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 학생들도 경험했을 만한 내용이네. 장소의 획일화를 현안으로 다루 보자.
- 학생 3: 좋아. 근데 장소의 획일화가 나쁜 점만 있을까? 인기 있는 명소를 따라 해서 획일화되더라도 관광객이 늘어나면 이익이 될 수도 있잖아.
- 학생 1: 물론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획일화된 장소는 금방 식상해져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익 역시 줄어들게 될 거고.
- 학생 2: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장소의 획일화에 대해 부정적 관점으로 비평문 쓰기를 해 보자.
- 학생 3: 응. ㉤그럼 장소의 획일화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더 생각해 볼까?
- 학생 1: 아무래도 장소의 다양성이 줄어들니까 가 볼 만한 장소가 줄어들겠지. 다른 문제점도 있을 텐데, 내가 자료 수집하면서 더 조사해 볼게. 다른 역할도 나눠볼까?
- 학생 2: 초고는 내가 써 볼게. 초고 다 쓰면 검토 부탁해.
- 학생 3: 나도 자료를 찾는 대로 정리해서 공유할게.

(나)

제목: 이곳저곳 같은 장소, 장소의 획일화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학교 인근의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이 즐겨 찾던 골목길이 사라지고, 개성 없는 ○○ 거리가 자리 잡았다. 추억이 담긴 골목길이 전국의 수많은

○○ 거리 중 하나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장소가 고유한 특성을 잃고 다른 장소와 동질화된 것이 장소의 획일화이다. 이러한 장소의 획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장소가 획일화되면 장소에서 느끼는 정서적 유대가 훼손된다. 장소는 물리적 환경으로서의 공간과는 구별되며,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 지리학자 에드워드 켈프는 ‘나의 장소’라고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장소가 인간에게 중요하다고 밝히며, 장소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강조하였다. 인간과 장소의 관계가 장소의 획일화로 훼손되면, 장소는 더 이상 애착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

또한 장소가 획일화되면 장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의 다양성도 줄어든다. 인기 있는 장소를 따라 하면, 장소 고유의 특성이 사라져 경험의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이다. 교내 학술제에서 소개된 ‘우리 동네 보고서’를 보면, 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일어난 변화가 최근 우리 동네 곳곳으로 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장소가 획일화되어 차별성이 사라지게 되면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소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그런데 장소의 획일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들은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행하는 장소를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어딜 가나 비슷한 장소에 싫증을 느낀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찾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해 기대했던 경제적 효과도 지속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장소의 가치는 장소가 가진 고유한 특성에 기인한다. △△ 재래시장에서는 전통적인 모습으로 장소의 고유성을 살려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장소의 획일화에서 벗어나 각 장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키고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답률 95.6%]

6)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가 언급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확인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제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③ ㉢: 상대의 의견에 대해 추가 정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④ ㉣: 상대에게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고3 19년 06월 평가원 7번

[4~기] (가)는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문이고, (나)는 (가)의 보도 이후에 지역 사회에서 개최된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 한옥의 멋' 솔빛 마을이 달라진다
- 솔빛 마을, 시청과 한옥 관광지 조성에 합의 (내용 생략)

(나)
시청 측: 지난 협상 후 기사를 통해 여러분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선 주민들의 한옥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에게 한옥 내부를 직접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 측: 저희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옥 내부를 개방하면 주민들의 사생활이 침해받아 삶의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결국 OO 마을 처럼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이 떠난 자리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외지인들로 채워져, 전통 마을로서의 모습도 퇴색될 것입니다. [A]

시청 측: 이해합니다. 저희도 모든 한옥을 개방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하는 주민들에 한하여 한옥을 개방하되 가능하면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개방을 허락하실 경우에도 예약한 관광객에게만 관람을 허용하고, 한옥 관광 도우미가 동행하여 미개방 영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바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민 측: 한옥 내부 관람을 않고 골목길 관람만 한다 해도 많은 관광객이 한곳에 몰리면 현재의 마을 여건상 개방 여부와 상관없이 주민들의 삶이 침해될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다닐 만큼 길이 넓지도 않고요.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여행 경험의 질이 동시에 악화될 것입니다. [B]

시청 측: 한옥 내부 관람 인원은 매일 일정 수 이하로 제한하고, 단체 관광은 마을 관광 에티켓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시간 정보 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의 동선이 분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 측: 그 정도 계획은 마을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 봅니다. 그러면 한옥 개방 시간은 오후 5시까지로 제한해 주십시오. 또한 한옥 관광 도우미로 지역 어르신들을 우선 채용해 주십시오. [C]

시청 측: 지역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채용金は 수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개방 시간은 늘려 주시길 바랍니다. 야간 개방에 대한 관광객들의 호응이 클 것이므로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지 않을까요?

주민 측: 개방 시간을 연장하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상쇄할 만한 대가를 얻는다면 주민들이 연장에 찬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방시간 연장의 이득은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야간 개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시청 측도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D]

시청 측: 그러면 야간은 아니더라도 오후 7시까지 개방은 고려해 주십시오. 그 후는 주민들의 생활을 배려하여 관광객들의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주민 측: 그렇게 하신다면 그 점은 주민들과 다시 상의해보겠습니다. 대신 관광 산업 발전으로 증대된 세수는 반드시 주민 생활 복지 개선에 사용해 주십시오. 노인 회관 시설 개보수와 주민 문화 시설 마련에 중점적으로 활용해 주신다면 개방 시간과 관련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

[정답률 87.8%]

가) (나)의 담화 흐름을 고려할 때,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논의할 대상을 제한하여 상대방에게 선택할 것을 권유하는 발화이다.
- ②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③ 상대방이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을 가정하며 그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 ④ 상대방과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서 자신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 ⑤ 상대방과 공동으로 기대하는 상황이 발생할 조건을 제시하며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부정하는 발화이다.



고3 19년 09월 평가원 4번

[정답률 93.0%]

[4~5] 다음은 학생이 교지에 실을 글을 쓰기 위한 면담이다. 물
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한국고 교지 편집부 기자 ○○○입니다.
 사서: 네, 반가워요. 햇살도서관 사서 △△△입니다.
 학생: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도서관을 저희 학교 교
 지에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햇살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참 좋을 거라고 주변 분들이 추천하시더라고요.
 사서: 우리 도서관을 소개한다니 고마워요.
 학생: 도서관에 다녀온 주민들이 SNS에 ‘햇살도서관은 책을 빌
 리는 곳, 그 이상의 장소’라고 쓴 것을 봤어요.
 사서: 아마 ‘책 편지’ 서비스 때문일 거예요. 이 서비스가 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좋아요.
 학생: 책 편지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서: 혹시 신청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학생: 아, 신청 방법뿐만 아니라 서비스 진행 과정도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서: 네, 책편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도서관에 직접 와서
 책을 통해 어떤 고민을 해결하고 싶은지 신청서를 작성하
 면 됩니다. 저희 사서들이 그것을 보고, 고민 해결에 도
 움이 될 만한 책을 선정합니다. 다음 날 선정된 이유를
 적은 편지를 책과 함께 신청자에게 드립니다. 일종의 개
 인 맞춤형 서비스죠. [A]
 학생: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이 서비스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서: 지역 주민들께 책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학생: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고 싶었나요?
 사서: 우리는 많은 고민 속에 살지만 그 답을 찾기가 힘들잖
 아요. 우리 도서관에서는 고민을 해결하는 데 책이 도움
 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책 편지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
 어요. [B]
 학생: 그렇군요. 그런데 이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
 으세요?
 사서: 적은 인원으로 일일이 책을 고르고 편지를 쓰는 게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서비스를 즐겁게 이용하시는 주민들의
 모습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학생: 인자하신 모습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하시네요.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도서관이란 어떤 곳인가요?
 사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니라, 책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학생: 책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시려는 선생님의 친절한 마음
 이 한국고 학생들에게도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서: 고맙습니다.

8)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있다.
- ② [A]에서 사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학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있다.
- ③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이 면담의 목적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질문을 하고 있다.
- ④ [A]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질문의 의도를 확인하고 있고, [B]에서 학생은 사서의 답변을
듣고 더 알고 싶은 점을 질문하고 있다.
- ⑤ [A]에서 학생은 질문의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판단하여 다
시 질문하고 있고, [B]에서 사서는 학생의 질문 중 일부 내용
을 반복하여 자신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고3 19년 11월 수능 5번

[4~기 (가)는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토론 후 과제: 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확장하여 '인간과 인공 지능의 관계'에 대해 주장하는 글쓰기

(나) 학생의 초고 (생략)

[정답률 89.4%]

9)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반대 2는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적절한 사례를 요구하고 있다.
- ② [A]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이의 제기에 대해 반박하며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이 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B]의 찬성 1은 상대측의 진술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 ④ [B]의 반대 1은 상대측이 제시한 근거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고 새로운 정보를 통해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의 찬성 1과 [B]의 반대 1은 모두 상대측이 언급한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추가하고 있다.

(가)

사회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측이 먼저 입론해 주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공 지능과 문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편리성이 있어 면접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한 회사는 면접에 소요되는 인력을 줄여, 비용 절감 측면에서 경제성이 큼니다. 실제로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한 ○○회사는 전년 대비 2억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식의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데 반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의 객관성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인공 지능 면접을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반대 2: 기존 면접에서는 면접관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하셨는데요,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려면 오히려 해당 분야의 경험이 축적된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가 면접 상황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찬성 1: 면접관의 생각이나 견해로는 **지원자의 잠재력**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회사의 인사 정보가 축적된 데이터가 잠재력을 판단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면접이 신뢰성도 높습니다. 회사 관리자 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잠재력 파악에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신뢰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A]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해 주십시오.

반대 1: 저희는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먼저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기술적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면접이 원활하지 않거나 중단되어 지원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지원자들의 면접 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은 당장의 비용 절감 효과에 주목해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현재의 경제성만 고려하면 미래에 더 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인재를 놓치게 돼 결국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지능의 빅데이터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사회에서 형성된 정보가 축적된 결과물**로서 특정 대상과 사안에 치우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찬성 1: △△회사는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폐지했지만, 통계 자료에서 보다시피 인공 지능을 면접에 활용하는 것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B]

반대 1: 경제적인 이유로 인공지능 면접이 활용되고 있지만, 인공 지능을 활용한 면접의 한계가 드러난다면 이를 폐지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고3 18년 06월 평가원 A형 5번

[4~기] (가)는 모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학생들의 토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모둠 과제 안내장]

- 과제: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게 우리 도시를 소개하는 글 쓰기.
- 조건: 우리 도시의 특색 있는 장소나 행사를 포함할 것.

(가)

학생 1: 자,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지 논의해 보자. 나는 분식으로 유명한 맛나거리에 대해 쓰고 싶은데, 어때?

학생 2: 요즘 음식으로 유명한 △△거리, □□길처럼 비슷한 장소가 다른 지역에도 많잖아.

학생 3: 그럼 맛나거리 대신에 반딧불이 축제를 소개하자. 우리 도시가 청정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잖아.

학생 1: 그게 좋겠다. 반딧불이 축제에 대해 조사해 올게.

학생 2: 응, 알겠어. 그리고 사랑미술관도 소개하자. 거기서 운영하는 유화 그리기 수업이 우리 도시에서만 하는 거라 특색 있어 보이던데.

학생 1: 그 수업은 어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학생 3: 사랑미술관의 다른 활동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는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

학생 2: 알겠어.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점을 고려해서 사랑미술관에 대해 조사해 올게.

학생 3: 우리 도시의 특색 중에 전통이 드러나는 산할머니 제당과 거기서 열리는 문화제도 소개하자.

학생 1: 좋은 생각이야. 그 내용에 산할머니 전설과 사랑시 명칭의 유래도 추가하는 건 어떨까?

학생 3: 알겠어. 그 내용도 조사해 올게.

학생 2: 참, 바람맞이 언덕이 사진 찍기에 좋던데. 우리 도시의 특색은 아니지만 제당 근처니까 바람맞이 언덕도 소개하자.

학생 3: 그리고 제당에서 언덕까지 찾아가는 길도 안내하면 좋겠어.

학생 1, 2: 좋아.

학생 3: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어?

학생 2: ㉠수집한 내용들을 나열해서 쓰기만 하면 평범한 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인상적인 글을 쓸 수 있을까?

학생 1: ㉡독자들이 찾아가기 쉽도록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글을 조직하는 건 어때?

학생 3: 좋은 생각이야. 그리고 우리 도시를 상징하는 반딧불이 그림에 말풍선을 달고 거기에 문구를 넣자. 사랑시의 전통, 자연, 예술 분야의 특색을 모두 드러내고, 사랑시를 방문하면 얻을 수 있는 좋은 점도 문구에 포함하면 좋겠어.

학생 1: 그럼 문구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

학생 2: 대조의 표현 방식을 사용하는 건 어때?

학생 1, 3: 응, 좋아.

학생 1: 그럼 다음 주에는 함께 글을 써 보자.

(나)



사랑시의 이야기는 사랑시 터미널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산할머니 제당'에서 시작한다. 이 제당은 사랑시의 전통적 특색을 드러내는 곳으로 사랑시 명칭의 유래와도 관련된 곳이다. 전설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려온 여인이 아들 네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네 아들[四郎(사랑)]은 평생 효를 다해 어머니를 모셨고, 훗날 그 여인은 하늘로 올라가 마을을 지켜 주는 산할머니 신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예부터 우리 도시는 효를 으뜸으로 여기며, 산할머니 신을 섬 [C]기는 전통을 이어받아 이곳에서 해마다 문화제를 열고 있다. 제당 뒤편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정자를 지나 5분 정도 더 올라가면 '바람맞이 언덕'에 도착한다. 언덕 중앙에는 사랑시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노을이 질 무렵 바람맞이 언덕과 어우러진 풍경이 아름다워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이 찾고 있다.

바람맞이 언덕에서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 20여 분 걸다 보면 '사랑미술관'이 나온다. 이곳은 우리 도시로 이주한 예술가들이 사랑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청정한 자연의 모습을 담은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화가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자신들의 작품을 해설해 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랑미술관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숲이 우거진 공간이 나오는데, 이곳에서는 매년 여름에 '반딧불이 축제'가 열린다. 반딧불이 축제에서는 깨끗한 환경에서만 사는 반딧불이를 직접 보며 아름다운 반딧불을 즐길 수 있다. 여름날 사랑미술관에 들렀다가, 해가 지면 반딧불이 축제장에 가 보는 것도 좋다.

바쁜 학교생활로 인한 긴장을 풀고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면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이 돋보이는 도시, 전통과 예술이 공존하는 도시인 사랑시의 이야기를 따라 길을 떠나 보자.

[정답률 83.4%]

10)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우려되는 문제 상황을 들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상대가 제시한 의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에게 해결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③ ㉠은 ㉡과 달리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④ ㉡은 ㉠과 달리 상대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상대의 질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정확함을 확인하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의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



고3 18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정답률 73.7%]

[3~6] (가)는 공개 토론 장면의 일부이며, (나)는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1) (가)의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사회자: 지금부터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공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하십시오.

찬성 1: 우리 학교는 단순 다수제로 학생회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투표율이 낮아, 선출된 학생회장의 대표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제는 과반의 득표자가 없을 때, 다수표를 얻은 사람들을 후보자로 올려 과반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도입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투표율이 높아져 대표성을 인정받는 학생회장이 선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차 투표와 결선 투표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의사가 수렴되므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사회자: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반대 2: 투표 과정을 더 거친다고 후보자가 지닌 자질과 능력도 향상될까요?

찬성 1: 그렇다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향상되지는 않겠지요.

사회자: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저는 결선 투표제 도입에 반대합니다. 단순 다수제는 후보자 중 최다 득표자가 당선되는 방식입니다. 학생회장 선거의 투표율을 높여야 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순 다수제는 투표권을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는 민주적 절차입니다. 무엇보다 결선 투표제를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학교에서 시행하기 번거롭다는 것입니다.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시간을 또 내야 하고, 투표 소도 다시 설치해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입니다.

사회자: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대 신문이 있겠습니다.

찬성 1: 단순 다수제가 최선의 후보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게 만드는 민주적 절차라고 하셨는데, 결선 투표제도 1차 투표는 단순 다수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요?

반대 1: 그렇다면..., 그런 점에서는 더 민주적일 수도 있겠네요.

사회자: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 1: 결선 투표제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후보자들 간의 담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진정한 민주적 합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자: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반론하십시오.

찬성 1: 반대 측에서 시간과 비용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고등학교처럼 투표 방식을 변경하여 해결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생들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투표소 재설치 등의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

- ① '반대 2'는 반대 신문에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지적하여 상대방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게 하고 있다.
- ② '반대 1'은 입론에서, 상대방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다양하게 분석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찬성 1'은 반대 신문에서, 상대방이 한 말을 언급하며 질문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④ '반대 1'은 반론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 ⑤ '찬성 1'은 반론에서, 상대방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고3 18년 11월 수능 6~7번

[4~기] (가)는 학교 신문에 실을 기사문의 초고이고,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표제] 성금 마련을 위해 모두가 함께해

[전문]

지난 10월 4일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K군을 돕기 위해 응원 메시지를 달고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함께했다.

[본문]

(생략)

(나)

학생 1: 사제동행 마라톤 행사를 다룬 기사문을 검토할게.

학생 2: 이 기사는 내가 작성한 거지?

학생 3: 응, 초고라서 부족한 게 많을 것 같아.

학생 1: 우선 표제와 전문에 대해 논의하자. 표제를 수정하고, 전문은 육하원칙 중 빠진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아.

학생 3: ㉠네 말을 들으니 전문은 어떤 내용을 추가해야 할지 알겠는데, 표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더 말해 줄래?

학생 1: 표제는 중심 소재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현재 표제에는 어떤 행사가 열렸는지 드러나지 않잖아.

학생 3: 그러게, 표제에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학생 1: 그리고 행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써 보는 건 어때?

학생 2: 그러면 한눈에 기사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잖아. 대 [A] 신에 참가 인원수를 적자.

학생 1: ㉡네 말대로 하면 행사 규모에 초점이 맞춰져서 행사의 의미를 드러내려는 기사문의 의도가 살지 않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학생 3: 두 의견을 들어 보니, 네 의견대로 중심 소재를 담고 화합이라는 행사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도록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서 표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학생 1, 2: 응, 그래.

학생 1: 다음으로 본문에 대해 논의하자.

학생 3: ㉢선생님과 학생이 한 마음으로 행사에 참여한 모습이 드러나게 쓰려 했는데, 어때?

학생 2: 응, 그 점은 잘 드러나게 쓴 것 같아. 그런데 선생님들도 응원 메시지를 직접 써서 가슴에 달고 뛰었는데 본문에 그 내용을 빠뜨린 것 같아. 수정이 필요해.

학생 3: 그 부분은 일부러 그렇게 쓴 건데, 이상해?

학생 2: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궁금해.

학생 3: 응원 메시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학생들이 제안한 거라 학생의 역할을 강조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학생 2: 실제 사실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다뤄야지. 개인적인 관점에 따라 정보를 누락하면 안 돼.

학생 1: 맞아.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지.

학생 3: 그러게. 내가 잘못 생각했네. 수정해 올게.

학생 1: ㉣그런데 이번 행사는 그 의미가 중요한 만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화합을 드러내는 내용을 담기로 하지 않았어?

학생 3: 아, 맞아. 지난 회의에서 그러자고 했는데 잊었네. 거기에 학생 인터뷰를 넣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안 넣고.

학생 1: 응, 학생회장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한 인터뷰 있잖아. 그걸 넣으면 될 것 같아.

학생 2: 행사 이후 결과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면 좋겠어.

학생 3: 고마워. 지금까지 나온 의견 모두 반영해서 써 볼게.

학생 1: 그런데 글의 분량도 생각해야 할 것 같아.

학생 2: ㉤기사문이 실릴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추가로 작성할 내용은 많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학생 1: 지금 다시 읽어 보니 본문에 불필요하게 중복된 내용의 문장이 있어. 그걸 삭제하면 글의 분량이 줄어들 것 같아.

학생 3: 지면의 크기도 염두에 두면서 기사를 써야 하는구나. 알겠어. 그렇게 할게.

학생 2: 아, 그리고 성금을 5천 원씩 낸 건 학생이었고, 선생님은 만 원씩 내셨어. 사실에 맞게 본문을 수정해 줘.

학생 3: 그렇게. 처음 써 본 기사문이라 부족한 게 많아.

학생 1, 2: 괜찮아. 기사 쓰느라 고생했어.

[정답률 82.3%]

12) 대화의 흐름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제안 중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상대에게 요청하는 발화이다.
- ② ㉡: 상대의 제안은 기사문에서 강조하려는 바와 달라지게 한다고 판단하여 반대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하는 발화이다.
- ③ ㉢: 화합의 모습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본문에 나타나는지에 대한 상대의 생각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 ④ ㉣: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작성에 대해 논의했던 사항이 무엇 인지를 상대에게 환기하는 발화이다.
- ⑤ ㉤: 글의 분량을 언급한 상대의 의견에 대해 지면의 크기를 이유로 들어 상반된 의견을 드러내는 발화이다.

[정답률 57.7%]

13) [A], [B]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학생 3'은 '학생 1'과 '학생 2'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측에 절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은 비판하고 있고, '학생 1'의 의견은 지지하고 있다.
- ③ [A]에서 '학생 3'은 '학생 1'의 의견을, [B]에서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1'이 '학생 2'의 의견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 ⑤ [A]와 [B]에서는 모두 '학생 2'가 '학생 1'이 제시한 의견을 점검하고 있다.



고3 17년 06월 평가원 A형 4번

[4~5] (가)는 학생들이 발명가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이고, (나)는 이를 참고하여 '학생 1'이 '학습 활동' 과정에서 작성한 설명문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안녕하세요? 학생 발명가이신 선배님께 궁금한 게 많습
니다. 먼저 발명이 무엇인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발명가: 네. 발명은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새롭게 생각하여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학생 2: ㉠새롭게 생각하여 전에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요, 선배님의 발명품이 궁금해요.

발명가: (발명품을 꺼내며) 네, 이걸 보여 드리죠. 설탕, 소금과
같은 양념을 담은 통들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곤란한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통의 뚜껑과 본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습니다. 통 하나에 여러 가지 양념을 담
을 수 있게 말이죠.

학생 2: 간단하면서도 유용하네요. 저도 발명을 하고 싶은데 아
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아서 힘들어요.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다면 알려 주세요.

발명가: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것
은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의 주제가 되
는 물건을 탐색하며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가져 보고, 인지
단계에서는 그 물건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학습합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주제가 되는 물건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발명
단계에서는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물건을 개선할 아이디어
를 창출합니다. 이때 도움을 얻기 위해 기존의 다른 발명품들
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학생 1: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발명가: 좋습니다. (가방에서 필통을 꺼내며) 필기구로 말씀드리
죠. 여기 연필, 볼펜, 자가 있지요? 필기구를 발명 주제로 정
했다면, 체험 단계에서는 필기구만 골라 만지고 분해하며 호
기심을 가져 봅니다.

학생 2: ㉣그럼 다음 단계에선 과학적 원리를 공부하겠군요.

발명가: 네, 인지 단계에서는 필기구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공부
하지요. 다음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필기구를 개선할 아이디
어를 창출합니다. 아까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한다고 했
는데요, ㉤이럴테면 자가 발전 기능이 있는 손전등에 전자기 유
도 법칙이 이용됐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내용
을 통해 빛을 내는 볼펜이라는 아이디어를 생성할 수 있지요.

학생 1: 그렇군요. 끝으로 미래의 발명이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
탁드려요.

발명가: 주변 사물에 호기심을 갖고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
세요.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개선 방법을 찾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학생 1, 2: 네, 감사합니다.

[학습 활동]

-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발명 동아리 소식지에 글쓰기
- 상호 평가를 통한 고쳐 쓰기

(나)

학생들은 발명을 어려워한다. 그 이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
는 것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이다. 이것은 아이디어를 떠올
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로 인
해 쉽게 발명에 다가설 수 있게 한다. 그렇다면 아이디어 창출
중심 모형은 어떤 단계로 이루어질까?

먼저 체험 단계에서는 발명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자전거라는 발명 주제가 제시되면 자전거를 눈으로 살피고
손으로 만진다. 그리고 직접 자전거를 타 보이기도 하고, 자전거
를 분해해 보이기도 하면서 탐색된다.

그 후 인지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학습
한다. 커브를 도는 쪽으로 자전거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원심력
때문이고, 울퉁불퉁한 길을 부드럽게 달릴 수 있는 것은 타이어
의 탄성력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하
면서 발명 주제인 자전거를 깊이 이해하게 된다. 이때 자전거를
타던 즐거운 추억을 떠올려 감상문을 써 보는 것도 좋다.

마지막으로 발명 단계에서는 자전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의 개선 방안을 생각한다. 즉 자전거가 아닌, 자동으로 공기
가 채워지는 튜브를 참고해 물에 뜨는 자전거라는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개선 방안을 생각할 때는 기존의 다른
발명품을 참고할 수 있다.

[정답률 90.6%]

14) ㉠~㉤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설명 대상에 대한 과학적 상식을 제시하여 상대방의 흥미
를 유발하고 있다.
- ③ ㉢: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에게 전하
고 있다.
- ④ ㉣: 상대방이 언급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내용을 예측하고
있다.
- ⑤ ㉤: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앞의 발화를 보충하고 있다.



고3 17년 09월 평가원 A형 7번

[4~기] (가)는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에 따라 학생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실시한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

2017년 △△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에서 또래 상담 요원을 모집합니다. 또래 상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 대상: △△구 지역 내 고등학생
- 신청 방법: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구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 홈페이지에 제출
- 선발 방법: 자기 소개서 및 면접

(가)

친구 관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는 또래 상담을 받으면서 많은 위안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저도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또래 상담 요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또래 상담 요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 참여한 공부방 봉사 활동은 상담에서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준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공부방 봉사 활동은 초등학생들의 공부를 도와주는 활동인데,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열심히 준비해 갔지만 제 생각만큼 잘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고민해 보니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형성할 겨를도 없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만 했던 것이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중 어려운 것은 없었는지, 혹시 공부 외에 힘든 점은 없는지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이후 수업도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부방 봉사 활동은 물론, 상담을 할 때에도 상호 간의 신뢰와 친근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상담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좋은 또래 상담 요원이 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상담 관련 내용을 공부하기 위해, 상담 선생님께 추천을 받은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여러 이론 중 저는 로저스의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로저스는 상담자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상담자에게는 피상담자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는 또래 상담 요원 역시 또래 친구들의 고민에 대한 공감적 이해의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래 상담을 받으면서 얻은 가장 큰 힘은 또래 친구가 전해 주는 정서적 위로였습니다. 만약 제가 또래 상담 요원으로 선발된다면 친구의 이야기와 고민을 경청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면접 대상자: 안녕하세요? 지원자 김○○입니다.

면접자: 안녕하세요? 긴장한 것 같은데요,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하면 됩니다.

면접 대상자: 네. 잘 알겠습니다.

면접자: 다양한 상담의 유형이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또래 상담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면접 대상자: 네. 요즘 청소년들은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데요, 제가 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싶은 대상 1순위가 친구였습니다. 또래 상담은 생각의 눈높이가 맞는 또래 친구와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평소 또래 상담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군요.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 제시한 상담자의 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면접 대상자: 네. 「상담 심리학의 기초」란 책을 보면 인간 중심적 상담 이론에서의 상담자의 태도가 세 가지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공감적 이해의 태도 외에도 상담자는 피상담자를 진정성 있게 대해야 하며 피상담자에 대한 긍정적 존중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했습니다.

면접자: 잘 알고 있네요. 혹시 상담에서 말하는 '레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면접 대상자: 레포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면접자: 네. 맞습니다.

면접 대상자: 레포란 상호 간에 신뢰하며 감정적으로 친근감을 느끼는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상담은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하는 활동이므로 레포는 상담이 이뤄지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면접자: 신뢰와 친근감을 뜻하는 레포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는 상담의 중요한 요소라는 말이군요. 이번에는 상담 상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래 친구가 최근 성적이 많이 떨어져 부모님께서 자신에 대해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며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상담을 하겠습니까?

면접 대상자: 먼저 또래 친구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신뢰와 친근감을 형성한 뒤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며 상담을 하겠습니다.

[정답률 89.3%]

15) (나)에 나타난 면접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질문 내용을 확인 하고 있다.
- ② '면접 대상자'는 '면접자'와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③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 ④ '면접자'는 '면접 대상자'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며 재진술하고 있다.
- ⑤ '면접자'는 면접의 도입부에 '면접 대상자'의 긴장을 풀어 주는 말을 하고 있다.



고3 17년 11월 수능 A형 4~5번

[4~7] (가)는 활동지의 '활동 1'에 따라 학생들이 실시한 독서 토의의 일부이고, (나)는 '활동 2'에 따라 '민호'가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활동지]

「허생의 처」에서 허생은 집안을 전혀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상만을 추구한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홀로 집안의 생계를 힘겹게 꾸려 나가지만 빈곤한 형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던 중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허생과 갈등한다. 두 인물은 삶에서 중요시하는 행복의 조건이 서로 달라 같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허생은 세상의 이치를 밝히고자 독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독서에만 전념한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활동1]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토의해 보자.

[활동2] 토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가)

현지: 오늘은 내가 진행할게. (활동지를 나눠 주며) 지난 시간에 「허생의 처」를 읽었으니, 이번 시간에는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하려고 해. 활동지를 통해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금부터 토의를 시작해 보자.

민호: 행복의 조건은 지혜나 도덕적 선과 같은 내적 조건과 부나 명예와 같은 외적 조건으로 나눌 수 있잖아. 허생의 처는 빈곤한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이런 이유로 볼 때, 허생의 처는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 [A]

영수: 과연 그럴까? 허생의 처는 생존을 위한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런 점에서 허생의 처가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민호: 듣고 보니 그러네.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인 부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

현지: 정리하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외적 조건이나 내적 조건으로만 접근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네. 그렇다면 허생의 처가 추구한 행복의 조건을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민호: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은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겠어. 허생의 처는 홀로 가정 생계를 꾸려야 하는 부담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고 있고 허생은 처의 힘겨움을 외면하고 있어.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아.

영수: 맞아. 허생의 처가 추구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족 구성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더 살펴보면, "나는 내 남편이 하는 일을 모르고, 남편은 제 아내인 나를 모르고..."라고 허생의 처가 남편에 대해 한탄하는 대목을 볼 때 허생의 처는 가족 간의 소원한 관계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로 여기는 것 같아. [B]

현지: 정리하면, 결국 허생의 처는 강요된 희생과 소원한 가족 관계라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던 것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를 행복의 조건으로 추구했다고 볼 수 있겠어.

(나)

「허생의 처」를 읽고 허생의 처가 빈곤한 형편에 힘들어 하고 한탄하는 모습을 통해, 나는 허생의 처가 행복의 외적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여겼다. 하지만 토의를 통해 허생의 처는 단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충족되기를 바랐을 뿐, 물질적인 부를 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생계와 관련된 문제만 해결된다면 허생의 처는 행복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허생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느라 독서에만 전념하여 가정을 외면했다. 이 때문에 허생의 처는 생계에 대한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었고, 남편인 허생과 소원해지면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 또한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허생의 처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바람직한 관계 역시 중요한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동안 나는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등 행복의 외적 조건만이 나를 행복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 조건만이 행복을 위한 조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공부나 친구를 핑계로 가족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반성하게 되었다.

[정답률 91.7%]

16) 다음은 '현지'가 (가)를 준비하면서 떠올린 생각이다. ㉠~㉣ 중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고른 것은?

이번 독서 토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 우선 토의와 관련된 활동지를 나눠 주고, ㉠시작할 때 토의 주제를 언급하는 게 좋겠어. 그리고 참여자들이 고루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 발언 순서를 지정해 줘야지. ㉢ 근거 없이 의견만을 이야기할 때는 근거를 함께 제시하도록 요구해야겠어. 토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토의 내용을 정리해 주고, ㉤질문을 통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정답률 84.5%]

17) [A], [B]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영수'는 '민호'에게 추가적인 근거를 요구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②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또 다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③ [A]: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그 의견을 재진술하고 있다.
- ④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을 받아들이며 이를 보완하는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 ⑤ [B]: '영수'는 '민호'의 의견에 대해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고3 16년 06월 평가원 A형 4번

[정답률 87.4%]

[3~5] 다음은 학생들 간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이번 모둠 과제를 하려면 먼저 ○○의 이해를 같이 읽어야 하잖아. 내용이 많고 어려워 보이는데 시간도 많지 않아서 걱정이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자. 일단 사회는 내가 볼게.

학생 2: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매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의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 좋겠어. 그러면 발표자는 자신이 맡은 부분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야.

학생 3: 그럴 경우 발표자 외의 다른 사람들은 책을 읽어야 하는 책임감이 덜할 수도 있어. 그래서 말인데, 자유 토의 방식은 어떨까? 구성원들 모두가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충분히 잘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야.

학생 1: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라는 두 가지 방안이 나왔네. 그럼 어느 방안이 좋을지 말해 보자.

학생 4: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하면 책을 깊이 이해할 수 있어. 친구들이 우리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 주니까 이해도 쉬울 거고, 모르는 부분이 있어도 서로 부담 없이 질문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

학생 5: 그런데 발표자가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나머지 모두가 오해를 할 위험이 있어. 자유 토의 방식은 모두가 책을 꼼꼼히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니까 책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A]

학생 2: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꼼꼼하게 다 읽어 와야 하는 것은 솔직히 부담이 돼.

학생 3: 나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책을 꼼꼼히 읽고 다른 사람과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학생 4: 하지만 자유 토의 방식은 중심점 역할을 하는 사람을 따로 정하지 않아서 토의가 활발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아. 이에 반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은 발표자가 그 역할을 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어.

학생 2: 그리고 자유 토의 방식으로 할 경우, 책을 안 읽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 문제가 돼. 책을 읽고 온 사람들은 활발히 참여하겠지만 안 읽고 온 사람은 소외될 수도 있어. 그러다 한 두 명씩 빠지다 보면 모임이 어려워질 거야.

학생 3: 그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도 마찬가지야. 발표자가 준비를 제대로 해 오지 않으면 모임을 할 수가 없잖아. [B]

학생 4: 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부담감이 발표자에게 오히려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지.

학생 1: 자,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것이 좋을지 결정해 볼까?

학생 3: 음, 생각해 보니까 자유 토의 방식은 준비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다들 책 내용 모두를 이해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책을 꼼꼼하게 다 읽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아. 안 그래?

학생 5: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이 좋겠다는 거지? 내 생각도 마찬가지야. 다들 책 읽기 모임을 처음 하는 상황이라 토의를 하는 것도 익숙하지 않을 거고.

학생 1: 그러면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해 보는 게 어때? 문제점도 나타나겠지만, 그것들은 차츰 개선해 나가도록 하자. 모두 동의하지? [C]

학생들: (모두 동의를 표한다.)

18)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단점을 언급한 후 다른 방안의 장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언급한 후 다른 방안이 지닌 문제점을 말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특정 방안의 장점을 인정한 후 다른 방안이 그 장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특정 방안의 한계를 언급한 후 그 방안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B]에서는 특정 방안의 장단점을 언급한 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고3 16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3~5] 다음은 학생들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이번 교내 학생 연설의 주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합시다'이고 오늘 ㉠우리가 할 토의 주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교내 학생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야. 지금부터 ㉡우리가 할 연설에 대해 토의해 보는데 먼저 연설을 시작할 때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학생 1: 우선 연설을 할 장소와 연설을 들을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해. 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이고, 주제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제각각인 친구들이 대상이니 인기 가요를 틀어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게 어떨까?

학생 2: 글썄, 그 방법은 이미 다른 친구들이 여러 번 쓴 방법이라 더 이상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워.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어때?

학생 3: 연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연설 주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아. 주제와 관련 있는 내용이면 좋겠어. 그래서 말인데, 연설을 시작할 때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한 후 사이버 언어폭력의 개념과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의 시급성을 언급하자.

학생 1: 응. 시 낭송은 참신한 방식이니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데 도움이 되겠네. 주제와도 관련이 있으니 연설 내용 이해에도 도움이 될 거고.

학생 2: 그래. 생각해 보니 그 방법이 좋겠다.

사회자: 그럼, 이제는 사이버 언어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와 그 제시 순서에 대해 논의해 보자.

학생 1: 사이버 언어폭력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므로 이 점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자. 순식간에 확산되는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을 핵심 근거로 들어야 해. 피해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 자료를 보여주면 친구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될 거야.

[A]

학생 2: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핵심 근거로 보는 네 의견에는 동의해. 그런데 친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면 어떨까?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지만 사이버 언어폭력은 처벌받게 되는 범죄 행위라는 점을 첫째 근거로 들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 관련 법 조항을 자료로 제시하면 더 효과가 있을 거야.

학생 3: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근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먼저 친구들이 이 문제에 공감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 누구나 사이버 언어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첫째 근거로 제시하면 친구들이 이 문제에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야. 사이버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하면서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호소하는 거지.

학생 1: 지금까지 제안된 근거와 자료는 다 적절하다고 생각되니 모두 채택하자. 단, 순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근거, 문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의 순으로 제시하면

좋겠어.

학생 2 :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자. 연설 마지막엔 친구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자.

학생 3: 좋아. 나도 동의해.

사회자: 그럼, 지금까지 ㉤합의된 토의 내용을 반영하여 연설 계획을 정리해 볼게. 이제, 토의를 마치자.

[정답률 78.7%]

19) [A]에 나타난 참여자들의 발화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학생 1은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3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② 학생 2는 청중의 주의 집중 효과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1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③ 학생 3은 연설 주제와의 부합 여부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2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 ④ 학생 2는 핵심 근거로서의 적합성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1의 제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 ⑤ 학생 3은 청중의 경각심을 유발하는 측면에서 ㉠에 대한 학생 2의 제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고3 16년 11월 수능 A형 3~4번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정답률 84.2%]

사회자: 우리 학교 동아리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관은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동아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학생회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한 후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인 ㉠심사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추첨 방식을 요구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 방식의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고, 평가자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추첨 방식은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첨 방식으로 한다면 홍보관 운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동아리에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추첨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죠. 준비가 덜 된 동아리 [A]가 선정된다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찬성 1: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므로, 홍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홍보관 운영 동아리 선정을 추첨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존의 심사 방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평가 기준 역시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방식은 모든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작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중의 일부가 특정 동아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학생 [B]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반대 1: 그 문제는 평가 기준의 일부를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기존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근거로 삼아 새로운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정답률 85.4%]

2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가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합한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믿을 만하지 않음을 제기하고, 출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측이 인용한 전문가의 설명이 적합한지 따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고3 15년 06월 평가원 A형 1번

[1~2]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1: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둘이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 봐야 할 것 같아.

학생 2: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럼 우리 토요일에 연습할까? 주중에는 방과 후에 내가 학생회 회의가 계속 있거든.

학생 1: ㉡(고개를 저으며)안 될 것 같아. 나는 토요일에 공연 연습은 주중에 했으면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

학생 2: 아, 연습을 더 하긴 해야 하는데…….

학생 1: 연습 시간을 맞추는 방법이 없을까?

학생 2: 수요일과 금요일에 연습하는 건 어때? 네가 주말에 바쁘다고 하니깐 내가 주중 회의 시간을 조정해 볼게.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연습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너도 시간을 좀 조정해 봐.

학생 1: 그래. 내가 토요일 오전까지 홍보지를 마무리하면 오후에는 같이 연습할 수 있을 텐데.

학생 2: 토요일 오전에는 마무리할 수 있겠어?

학생 1: 그런데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빨리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경험자가 도와주면 빨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경험이 많고 잘 하잖아. 혹시…….

학생 2: 응? 왜 그래?

학생 1: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홍보지 만드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학생 2: 토요일 오전에 일을 끝내면 오후에는 연습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알았어.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학생 1: 그럼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와 토요일 오후에 연습하도록 하자.

학생 2: 그래 좋아.

학생 1: 그럼 연습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이제부터는 강당에서 연습하는 게 어때? 무대 위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해 봐야 공연 당일에 떨리지 않을 것 같아.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지.

학생 2: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갖자는 말이구나. (하락)

[정답률 92.6%]

22) ㉠~㉤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뜻에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상대방에게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을 통해 겸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표현하면서 부탁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을 재진술하여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5년 06월 평가원 B형 1번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지금부터 '청소년의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찬성 1: 저희는 팬덤 활동이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팬덤'은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집단을 말합니다. 팬덤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친구와 관심사를 공유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답답함에서 벗어나 공연장이나 경기장에서 스타를 응원하며 삶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한 조사에 따르면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팬덤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요즘 팬덤은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양한 문화 운동을 하고 있어 청소년들은 팬덤 활동을 하며 문화 실천의 주체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다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의 모습,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이 상으로 입론을 마치겠습니다.

반대 2: 방금 조사 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의 출처가 어딘가요?

찬성 1: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반대 2: [A]

찬성 1: 저희는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을 하신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중략)

찬성 1: 증독을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사용하신 거죠?

반대 1: 증독은 어떤 대상에 너무 깊이 빠져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찬성 1: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팬덤 활동을 열심히 하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반대 1: 증독된 청소년도 많을 겁니다.

[정답률 92.6%]

23) 토론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이 옳음을 강조하는 발화이다.
- ② 실제 사례를 근거로 들어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입증하는 발화이다.
- ③ 자신이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발화이다.
- ④ 상대방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화이다.
- ⑤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고3 15년 09월 평가원 A, B형 1번

[1~2]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호: 오늘 들은 [A]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특강 재미있더라.
 승우: 처음엔 들을 생각 없더니, 너 정말 집중하면서 들었네.
 지호: 그러게. 우리 반 애들 대부분이 신청하길래 따라서 신청한 거였는데 잘한 것 같아.
 승우: (웃으며) 뭔가를 결정할 때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 쪽으로 마음이 움직인다는 특강 내용이 딱 네 얘기였구나.
 지호: 그러네. ㉠년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과 관련된 경험 없어?
 승우: 당연히 있지.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고 하면 웬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이것도 특강 내용과 관련되는 거잖아.
 지호: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 맞아. 한정된 것이어서 일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 특강에서 말한 희소성의 원리네.
 승우: 맞아. 그런데 강의는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 어째 좀 피곤하다.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지호: 왜? ㉢아, 아까 반장이 그러던데 너 이번 학기에 동아리 부장 돼서 학술제 준비로 바쁘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에 할 일이 많은 모양이구나.
 승우: 응. 처음 해 보는 일이라 그런지 할 일도 많고 어렵네.
 지호: ㉣내가 작년에 학술제 준비를 해 봐서 아는데 일이 많아서 혼자 하긴 벅차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내가 작년에 해본 경험도 있으니까 도와줄게.
 승우: 진짜? 정말 고맙다.
 지호: ㉤아! 그리고 보니 이것도 오늘 들은 특강 내용과 관련되는구나.
 승우: 우와, 그러네. 상대방과 공통된 경험이 있으면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그 내용.
 지호: 맞아. 정말로 얻은 게 많은 특강이었어.

[정답률 91.4%]

2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질문을 통해 특강에서 들은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승우의 경험을 묻고 있다.
- ② ㉡: 승우 말의 일부를 단서로 하여 승우의 경험이 특강과 관련된 내용임을 확인하고 있다.
- ③ ㉢: 반장의 말을 통해 얻은 승우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승우의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
- ④ ㉣: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승우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 ⑤ ㉤: 특강에서 들은 말을 인용하여 승우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고 있다.



고3 15년 09월 평가원 B형 3번

[3~5] 다음은 두 마을 간의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군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축제를 기획하면서 개최 장소를 A마을과 B마을 중에서 선정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두 마을이 공동 개최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A마을의 대표 A와 B마을의 대표 B가 후속 협상을 하게 되었다.

A: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축제 공식 명칭에 대하여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어때세요?

B: 좋습니다.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A: 그러면 저희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 공식 명칭은 두 마을의 이름을 병기하되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했으면 합니다.

B: 글쎄요. 저희도 저희 마을 이름이 앞섰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개최지로 저희가 유력했던 상황에서 사실상 저희의 양보로 공동 개최가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명칭과 관련해서는 저희의 의견을 수용해 주십시오.

A: 공동 개최와 관련해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B마을도 공동 개최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축제 명칭은 각자의 축제 유치 의도를 고려하되 세부 조건을 조율해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B: 무슨 뜻인지요?

A: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B마을은 축제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B: 그렇습니다.

A: 그런데 이미 유명한 B마을과는 달리 저희는 저희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그러니 축제 명칭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B마을에 유리하도록 협상의 세부 조건을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B: 글쎄요. 축제 명칭에서 앞쪽에 표기되는 것은 그 의미가 큼니다. 저희 마을의 인지도가 이미 높다고 하더라도…….

A: 명칭에서 저희 마을 이름을 앞세우는 대신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B: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경제적 이득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첫째, 명칭보다는 홍보 효과가 적지만 저희 마을 특산품을 축제 캐릭터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공동 개최를 하게 되면 행사들을 서로 나누어 진행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전체 행사 중 60%를 가져가겠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축제 공식 명칭과 관련하여 합의할 수 없습니다.

A: B마을 특산품을 캐릭터로 만들면서 행사를 60%까지 가져간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배분 비율은 공동 개최에 걸맞게 50%를 원칙으로 합시다.

B: 그 제안은 저희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공동 개최에 대한 반대가 많거든요. 차라리 저희 마을이 유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단독 개최를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A: 지난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같은 ○○군 마을끼리 온당치 않습니다. 단독 개최를 하더라도 저희 마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행사 배분 비율은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B마을이 원하는 다른 조건을 추가하시는데 어떨까요?

B: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행사 배분은 동일하게 50%씩 하고, 행사 선택은 하나씩 교대로 하되, 저희 마을부터 선택을 시작

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높은 행사를 저희 마을에서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A: 음.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하는 것으로 하고 그 정도 조건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합시다.

[정답률 84.4%]

25) 위 협상에 나타난 A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제 타결의 시급함을 강조하며 상대방의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 ② 연쇄적인 질문을 통해 갈등 상황의 원인이 양측 모두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 ④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며 감정에 호소하여 상대방의 무조건적인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 ⑤ 가정적 진술을 통해 상대방이 내세운 근거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의견이 정당함을 피력하고 있다.



고3 15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4~5] 다음의 (가)는 발표 준비를 위한 학생들 간의 대화이고, (나)는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이번에 자유 주제로 학급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과제 있잖아. 우리 모둠은 아직 어떤 내용으로 발표할지 정하지 못해서 고민이야. 좋은 생각 없니?

학생 2: 최근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로봇 '휴보'가 여러 방송 매체에서 보도되었잖아. 로봇에 대해 발표해 보는 게 좋겠어.

학생 1: 그거 좋다. 그런데 로봇에 대한 내용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다룰 내용을 좀 좁히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을 다뤄야 친구들이 흥미롭게 들을까?

학생 2: 이진 어때? 로봇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로봇의 발전과 관련하여 발표해 보는 거야.

학생 1: 괜찮다. 이번 발표는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아.

(나)

여러분, 앞의 화면을 잠시 봐 주세요. (로봇 영상을 보여 주며) 여기 등장하는 로봇은 올해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 로봇 '휴보'입니다. 두 발로 걷고 층계를 오르내리는 것이 사람과 비슷하네 참 신기하죠? 이 시간에는 이런 로봇의 발전과 인간의 삶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로봇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보도나 영화에서 봤던 여러 형태의 로봇이 생각날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을 봐 주십시오. (사진을 보여 주며) 이 당시의 로봇은 사람을 닮은 데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후에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의 팔 모양을 한 로봇이 만들어지고 최근에는 '휴보'처럼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어 두 발로 걷는 로봇이나 인간의 감정을 읽는 로봇까지 등장하였습니다. (하락 ㅋ)

[정답률 88.2%]

26) (가)에서 '학생 2'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의도를 질문을 통해 확인하며 말하고 있다.
- ② 상대방의 질문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말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의 발언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고3 15년 11월 수능 1번

[1~2]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오늘은 남한산성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고자 문화 해설사 ○○○ 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사: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남한산성은 오랜 역사 속에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해설사: 맞습니다. 험준한 자연 지형에 적합한 축성술로 성벽을 쌓았기 때문에 적이 공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자연에 축성 기술을 접목한 조상들의 지혜네요.

해설사: 그렇습니다. 『택리지』에는 남한산성이 그러한 이유로 큰 전란에도 함락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죠.

진행자: 그렇군요. 그럼 오늘 대담의 주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은 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나요?

해설사: 남한산성의 가치로는 먼저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주는 표본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의 표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사: 그것은 하나의 성에서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한산성은 신라 시대에 처음 쌓은 주장성을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증축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 보니까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나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다르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대별 특징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해설사: 맞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이전의 성벽은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은 돌로 쌓았고 조선 영조 때의 성벽은 크기와 형태가 다양한 돌을 이어 붙이듯이 쌓았습니다. 이처럼 남한산성에서는 시대별로 다른 축성술을 한눈에 볼 수 있죠.

진행자: 청취자 여러분도 남한산성에 가시면 성벽의 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좋겠네요. 그럼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된 또 다른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정답률 81.8%]

27) [A]~[E]에 나타난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 진행자는 대담의 취지를 밝히며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B]: 해설사는 소개할 내용과 관련된 진행자의 배경지식을 물은 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C]: 해설사는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여 진행자 말의 일부를 수정하고 있다.
- ④ [D]: 진행자는 해설사가 말한 내용이 진행자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 ⑤ [E]: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한 후 다음에 나눌 이야기를 안내하고 있다.



고3 14년 06월 평가원 A형 3번

[정답률 77.5%]

[3~5] 다음은 텔레비전 방송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28)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나무 해설가 김 선생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해설가: 지난 시간에 나무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으니, 오늘은 나무와 문화 예술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림을 보여 주며) 우선 이 그림을 보시죠. 멋지지 않나요?
 진행자: 네, 정말 멋진 산수화네요. 그림을 보니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해설가: 우리 조상들은 산, 물, 나무를 그림의 중요한 소재로 생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혹시 산수화에 자주 등장하는 나무가 뭘지 짐작이 되십니까?
 진행자: 소나무가 아닌가요?
 해설가: 맞습니다. (㉡표를 제시하며) 표를 보면 두 번째로 나오는 나무보다도 소나무가 두 배 정도 많이 출현했습니다.
 진행자: 소나무가 그렇게 많이 등장한 이유가 있을까요?
 해설가: 그림에서 소나무만 다시 볼까요? (소나무를 확대해 찍은 ㉢사진을 보여 주며) 나무의 굵은 모습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진행자: 굵은 모습 때문이라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가: 전통 조형의 아름다움은 자연의 이치를 존중하는 곡선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소나무가 그 기조에 적합하죠. 또 사철 푸른 특성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아, 소나무의 아름다운 외형과 그것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
 해설가: 그렇습니다. 그림의 나무를 통해 선조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거죠. 이번엔 노래를 한 곡 들려 드릴 텐데요, 가사에 나무가 등장하니 잘 들어보세요. (㉣음악을 들려준다.)
 진행자: 제가 어릴 때 듣던 대중가요네요. 노래에 나무가 등장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해설가: 대중가요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대중가요에는 어떤 나무가 가장 많이 등장했을까요?
 진행자: 음……. 소나무인가요?
 해설가: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버드나무입니다.
 진행자: 의외네요. 저도 그렇지만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해설가: 대중가요의 주요 주제 중 하나는 고향에 대한 향수입니다.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 ㉤영상을 보여 준다.) 시냇가 버드나무는 떠난 고향을 연상케 하는 대표적인 소재이죠. 최근에는 버드나무가 줄어든 만큼 노랫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어 아쉽습니다.
 진행자: 예술 속에 나타난 나무를 통해 사람들의 가치관과 정서를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척 흥미롭네요.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 ① 해설가의 물음에 대해 질문의 형식을 취하며 답변하고 있다.
- ② 해설가의 말에 호응하며 해설가의 발언에 대해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③ 해설가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 ④ 해설가의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통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⑤ 해설가의 설명을 요약하면서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고3 14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정답률 89.2%]

[4~5] 다음은 상담 선생님과 학생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3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희: (상담실에 들어서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선생님,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선생님: 응, 괜찮아. 여기 앉아서 편하게 말해 보렴. 무슨 일이니?

진희: (자리에 앉으며) 제가 친구들이랑 얘기해 보니까, ㉡**친구 문제나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는 선뜻 고민을 털어놓기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 그 친구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상담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몇 친구들이랑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선생님: 오, 좋은 생각을 했구나. 선생님도 또래 상담 동아리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단다. ㉢**물론 상담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같은 또래 친구들이 상담해 주는 것도 좋지. 편하게 얘기하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 갈 수 있으니까.**

진희: 네. 그런데 막상 또래 상담 동아리를 만들어 상담을 할 생각을 하니깐 어떻게 상담하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몰라요…….

선생님: ㉣**그러니까 상담 방법을 알고 싶다는 거지?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친구의 말을 잘 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해. 혹시 친구가 말하는 내용이 네 생각과 맞지 않아도 선불리 비판하지 말고.**

진희: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친구가 자기의 말을 더 편하게 할 수 있겠군요.**

선생님: 그렇지. 그리고 그 친구의 생각과 감정을 너도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 그것 때문에 크게 힘들었구나.’처럼 말야.

진희: ㉥**아, 정말 그렇겠네요.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선생님: 또,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들을 얘기해 주며 용기를 주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진희: 네. 선생님,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선생님: 그런데 상담을 하려면 이보다 알아야 할 것들이 훨씬 많단다. 또래 상담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상담 방법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할 테니까 선생님이 관련 기관을 소개해 줄게.

진희: 고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래 상담 동아리를 통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요.**

- ① ㉠: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② ㉡: 상대방과 공유한 정보를 근거로 태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 ③ ㉢: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말에 수긍함을 언어적 · 비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고3 14년 09월 평가원 B형 3번, 4번

[3~5]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지금까지 지역과 학교의 상생 협력을 위해 학교에 문화 체육 시설이나 편의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 교수: 시설 조성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사업 추진과정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서 발생합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학교에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는 정도의 조항만 있을 뿐, 학교에 설치할 시설의 기준이나 설치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시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A]

사회자: ㉡이번에는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윤 교수의 말씀처럼 규정도 필요하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사업 참여자들의 입장 차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자들이 서로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노력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지만 결국엔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B]

사회자: ㉢지역과 학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네, ○○지역에서는 주민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주차장과 체육관 시설을 공동으로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들의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예측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로의 요구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고 학교 시설 조성 사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C]

사회자: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 제도적 보완과 당사자들의 요구를 고려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청중의 질의를 받아보겠습니다.

청중 1: 윤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시설 조성과 관련하여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면 사업 참여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할 때 이를 근거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규정에 얽매인 나머지, 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D]

윤 교수: 학교 시설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거의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원칙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하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협력 주체들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E]

사회자: 한 분만 더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중 2: 저는 △△구청 직원인데요, 저희는 지역 내 학교에 공용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구청에서는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 멀티미디어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주차장 조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생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주차장 조성을 꺼리고 있습니다.

학교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자: 이에 대해서는 최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 교수: (가)

[정답률 94.0%]

31) ㉠~㉤의 기능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해야 할 사안을 안내한다.
- ② ㉡: 토의 진행을 위해 다음에 발화할 토의 참여자를 지정한다.
- ③ ㉢: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의 장단점을 요약한다.
- ④ ㉣: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에 대해 추가적 정보를 요청한다.
- ⑤ ㉤: 두 토의 참여자가 발화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정답률 92.3%]

32) 토의 참여자의 발화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 '윤 교수'의 의견을 듣고 '윤 교수'와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C]: '사회자'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언급한 해결 방안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 ④ [D]: '윤 교수'의 의견을 듣고 '윤 교수'가 제시한 해결 방안의 효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다.
- ⑤ [E]: '청중 1'의 의견을 듣고 '청중 1'의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 한 후, 현실적 한계를 고려하여 자신의 주장을 유보하고 있다.



고3 14년 11월 수능 A형 1번

[정답률 81.6%]

[1~2] 다음은 인터뷰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33) 위 대화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학생 기자 유서연입니다. 박사님의 책 『화폐 속 문화』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을 주제로 교지에 실을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서 박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박사: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학생: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적어 왔는데요. 먼저, 천 원권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사: 그러죠. 천 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

학생: 네. 앞면엔 퇴계 이황, 뒷면엔 도산 서원이 있어요.

박사: 맞아요. (천 원권 뒷면을 가리키며) 그러면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도 아나요?

학생: 어,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박사: 이 그림은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이 그린 ‘계상정거도’라는 작품입니다. 정선은 퇴계 이황의 도산 서원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그렸습니다.

학생: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황 선생이 계시는 것만 같아요.

박사: (웃음)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작품 속을 유심히 보면 책을 읽고 있는 학자의 모습도 보이지요?

학생: 와! 있네요. 작아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박사: 그렇죠?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인답니다.

학생: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만 원권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들어 있나요?

박사: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 (만 원권을 가리키며) 여기 세종 대왕 초상 옆에는 한글을 사용한 최초의 작품인 ‘용비어천가’ 2장이 있어요.

학생: 그렇군요. 이번에는 뒷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뒷면을 가리키며) 이 그림은 별자리인가요?

박사: 맞아요. 이것은 조선 초에 제작된 천문도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일부예요.

학생: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박사: 이 천문도는 세계적으로도 손꼽을 만큼 오래된 천문도 중 하나예요. 별자리를 보여 줄뿐만 아니라 별의 밝기까지도 표시했지요. 조선 시대의 높은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에요.

학생: 와! 지갑 속에 우주가 들어있었군요.

박사: 참 신기하죠? 평소에 저는 학생들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인터뷰가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 ①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② 학생은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며 듣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박사는 학생의 배경 지식을 점검해 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④ 박사는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⑤ 박사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화제와 관련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3 13년 06월 평가원 B형 3번

[1~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요즘 우리 시의 관광 산업이 위축돼서 지역 경제가 침체 될 것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역 관광 산업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시청 관광 진흥과 정○○ 과장님, 한국 대학교 관광학과 김△△ 교수님을 모시고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정 과장님께서 지역 관광 산업의 실태를 말씀해 주시지요.

정 과장: 우리 시는 문화유산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자연경관이 빼어나서 관광지로서 매력적이지만 관광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불거리나 즐길 거리에서 수년 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 교수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말씀을 들어보니 지속적으로 관광객을 끌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시의 역사적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이 답이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지역에서는 17세기에 만들어진 서원을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문을 연 지 두 달 만에 수천 명이 다녀갔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아서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정 과장님, 김 교수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정 과장: 지역에 있는 향교와 고택들을 개방하고 이를 묶어 이야기가 있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유주 및 거주인과 고택 개방에 대해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여기서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을 제안하실 방청객께서는 손을 들어주세요. (방청객을 확인한다.) 제일 앞줄에 계신 분 말씀해 주세요.

고택 주인: 정 과장님 말씀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안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저처럼 증가 고택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택이 생활공간이기도 하고 조상님의 유산이기도 합니다. 이걸 개방하면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건물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요?
(하략)

[정답률 89.7%]

34) 위 토의에 참여한 이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회자는 발언자가 말한 의도를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다.
- ② 사회자는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며 토의를 진행하였다.
- ③ '정 과장'은 제공한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였다.
- ④ '김 교수'는 발언의 요지를 제시한 후 사례를 들어 뒷받침하였다.
- ⑤ '고택 주인'은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는 설의적인 질문을 하였다.

고3 13년 06월 평가원 B형 4번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소연: 영화 어땠니?
 창완: 주인공이 한복 디자이너로 나왔잖아. 한복을 많이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 한복이 진짜 멋지더라.
 소연: 그래, ㉠정말 멋지던데.
 창완: 또 있어. 이 영화가 가족 관계의 회복을 다루고 있었어. 그게 참 마음에 와 닿았어.
 소연: ㉡나도 그렇게 느꼈는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었어?
 창완: 부자간에 갈등이 깊었지만, 결국엔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참 인상적이었어. 근데…….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쉰다.)
 소연: ㉢괜찮아, 말해 봐.
 창완: 실은, 영화를 보면서 아버지랑 내가 자꾸 떠오르더라고.
 소연: 그래? ㉣혹시 너도 아버지랑 갈등이 있었던 거야?
 창완: 사실, 어제 아버지께 옷차림이 불량하다고 엄청 혼났거든. 난 평범하게 입었던 거 같은데……. 평소에는 큰소리를 잘 안 내시는데 어젠 심하게 혼내시더라고. 그래서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오늘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어.
 소연: ㉤너 정말 맘이 불편하겠구나.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창완: 아버지께서 꾸중하신 건 내가 혹시라도 단정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하셔서 그러셨을 텐데…….
 소연: 그럼 고민만 하지 말고 아버지께 네 맘을 표현해 봐.
 창완: 난 말재주가 없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정답률 94.3%]

3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발언 내용 중 일부를 반복하여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상대의 표현 방식에 대한 자신의 평가가 옳은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하고 있다.
- ③ ㉢: 상대가 말을 중단한 점에 주목하여 상대가 말을 계속하도록 격려하고 있다.
- ④ ㉣: 대화 맥락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감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고3 13년 09월 평가원 A형 3번

[3번] 다음은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신문부 기자 ○○○입니다. 교내 신문에 '우주 정거장에서의 생활'이란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미리 조사했는데,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식사는 어떻게 하나요?
 연구원: 우주인들이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음료를 먹는 영상을 본 적이 있죠?
 학생: 네. 인터넷에서 본 적 있어요.
 연구원: 그런 영상에서처럼 물 같은 음료의 경우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먹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빨대를 사용하답니다.
 학생: 그렇군요. 빨대를 사용하는군요. 그럼 액체가 아닌 것들은 어떻게 먹나요?
 연구원: 지구에서는 보통 빵이나 과자를 먹다 부스러기가 생겨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우주 정거장 안은 첨단 장비들이 많아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우주에서 먹는 음식물은 가능한 한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도록 만들고요, 먹을 때에도 매우 조심합니다.
 학생: 부스러기 때문에 지구에서처럼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순 없군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떠다니는 상황에서 샤워는 가능한가요?
 연구원: 네, 지구에서 하던 것처럼은 불가능하지만 물에 젖은 스펀지나 목욕 수건, 젖은 화장지 등을 사용하죠. 양치를 할 때는 삼키는 치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정답률 92.6%]

36) '학생'과 '연구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은 연구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대화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 ② 학생은 이해하지 못한 용어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③ 학생은 연구원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설명 내용을 잘 이해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연구원은 답변 내용을 실감나게 전달하기 위해 학생에게 일상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 ⑤ 연구원은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주 정거장에서의 생활을 지구에서의 생활에 견주어 설명하고 있다.

고3 13년 09월 평가원 B형 1번

[1~3]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학교 누리집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내 음악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는 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입론은 찬성 측에서 먼저 시작해 주시고 이후에 양측이 번갈아 가면서 발언해 주십시오.
 찬성자 1: 교실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가 침해되므로 교내 음악 방송은 폐지해야 합니다.
 반대자 1: 교내 음악 방송은 유지해야 합니다. 교내 음악 방송 폐지는 휴식 시간에 음악 감상을 하며 쉬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성자 2: 교내 음악 방송은 빠른 템포의 댄스 음악 위주라 공부에 방해가 되고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반대자 2: 음악 감상은 청소년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많습니다. 또한 신나는 댄스 음악을 듣는 것은 긴장감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사회자: 찬성 측은 공부할 권리를, 반대 측은 음악을 들으며 쉴 권리를 근거로 각각 음악 방송의 폐지와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먼저 **반론**해 주십시오.
 반대자 1: 음악 감상이 학습 효율을 높여 준다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악 방송이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억지 주장입니다.
 찬성자 1: 억지 주장이라고요?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고 그렇게 말해도 되나요? 네?
 사회자: 잠깐만요, 양측은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은 삼가주십시오.
 찬성자 1: 네.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음악이면 모를까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나오는 방송은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자 2: 짧은 방송 시간에 여러 장르 음악을 섞어 듣느니, 지금처럼 댄스 음악만 들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게 더 낫습니다. 그게 아니면 청취 여부를 각 학급별로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교내 음악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교실뿐이니까 듣기 싫은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중략)
 사회자: 네. 양측의 반론 잘 들었습니다. 교실이라는 동일한 공간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락)

[정답률 94.7%]

37) 위 토론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론자들의 발언을 요약하여 쟁점을 정리하고 있다.
- ② 토론의 진행 절차에 맞게 발언 순서를 지정하고 있다.
- ③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④ 토론자들이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도록 토론에 개입하고 있다.
- ⑤ 토론자의 모호한 발언에 대해 질문을 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



고3 13년 09월 평가원 A, B형 4번

[4~5]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민: 환갑 넘으신 할머니께서 강사로 나오시고, 오늘 특강 참 특별했어.

혜경: ㉠맞아. 나도 오늘 특강 정말 좋았어. 할머니께서 20년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대학에 다니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

성민: ㉡나도 “천천히 갔지만 포기하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이 무척 인상적이었어.

혜경: 병수야! 너도 좋았어?

병수: ㉢글쎄…….

혜경: 응? 왜 그렇게 생각해?

병수: 나는 할머니 말씀이……. 뭐랄까? 그렇게 가슴에 와 닿지는 않았어. 우리는 지금도 늘 시간에 쫓겨서 빠르게만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천천히 가면서도 무엇인가를 끝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어서…….

성민: ㉣너는 할머니 말씀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구나.

혜경: ㉤야, 김병수! 왜 그렇게 심각해? 너 요즘 부쩍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

병수: 그런가? 사실 요즘 삶에 대한 명확한 목표가 없어서 이런 저런 고민이 많아. 며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차분히 생각을 정리하면 괜찮아질 거야.

성민: [_____ ㉥ _____]

병수: 맞아, 네 말대로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좋을 거 같아. 조언해 줘서 고마워.

[정답률 92.9%]

38)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상대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
- ② ㉡: 특강 시간에 들었던 말을 인용하여 상대에게 자신의 느낌을 말하고 있다.
- ③ ㉢: 질문에 대한 답을 생략하여 상대의 생각에 동조의 뜻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말을 요약하여 상대의 생각이 이치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말을 비판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고3 13년 11월 수능 A형 1번

[1~2] 다음은 친구 간의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재은: 성아야, 같이 가. 어? 그거 수민이 가방 아니야?

성아: 응, 수민이가 보건실에 있는데 조퇴하려고 하거든.

재은: ㉠하긴, 점심 먹을 때부터 안색이 안 좋긴 했지. 그래서 가방 가져다주는 거구나. 저번에 내가 다쳤을 때도 꼼꼼하게 잘 챙겨 주더니, ㉡(엄지를 치켜들며) 역시 김성아야.

성아: (웃으며) 고마워. 언제나 네 말을 들으면 힘이 나.

재은: 근데 너, 아까 점심시간에 할 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성아: 어? (잠시 말을 머뭇거리며) 그제…….

재은: 뭔데? 얘기해 봐. 우리 사이에 못할 얘기가 어디 있어?

성아: 음, ㉢너니까 하는 얘기인데, 내가 이번 전교 학생 회장 선거에 출마해 보면 어떨까?

재은: 정말? 훌륭한데! 그런데 갑자기 왜?

성아: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잠깐 임시 반장을 했었잖아. 학기 초에 내가 만든 프로그램 덕분에 친구들이 친해지고 즐거워하는 걸 보니까 참 좋았어. 난 많은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은데, 전교 학생 회장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재은: 그렇구나. 그런데 너, ㉣예전에는 뒤에서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기는 했어도 앞에 나서는 건 꺼리지 않았어?

성아: 그랬지. 그런데 막상 임시 반장을 해 보니까 남들 앞에 선다는 게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만한 건 아니더라고. 또……. (잠시 침묵)

재은: ㉤그리고? 계속해 봐.

성아: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동안 도전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피하면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극복해 보려고.

재은: 그렇구나. 큰 결심 했다. 나도 도와줄게.

성아: 고마워. 그런데, 좀 고민되는 게 있어. 선거 운동 기간에 연설을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면 좋을까?

재은: 음, 대중 앞에서 설득적 말하기를 할 때는, 훌륭한 성품을 청중이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의미 있는 경험을 제시하면 설득력을 높일 수 있대. 그러니까 (_____ ㉥ _____)

[정답률 94.7%]

39) 위 대화를 고려할 때, ㉠~㉥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강화할 수 있다.
- ③ ㉢: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④ ㉣: 대화 참여자 간의 문화적 배경 차이가 화제 선택에 제약을 줄 수 있다.
- ⑤ ㉤: 대화 참여자의 협력적 반응이 대화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3 13년 11월 수능 A형 3번

[3번] 다음은 라디오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책 사랑'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우리나라 배」의 저자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반갑습니다.
 진행자: 선생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의 내용이 참 흥미롭네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많은 사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맞습니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선생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가요?
 전문가: 네, 그건 배의 밑 부분을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덕분에 판옥선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용이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섬이 많고 수심이 얇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비교적 큰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죠?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답률 93.0%]

40)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전문가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② 전문가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전문가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전문가의 말에 나온 용어의 개념을 물음으로써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진행자는 전문가에게 중심 화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요구하며 대답을 진전시키고 있다.

고3 13년 11월 수능 B형 2번

[1~3] 다음은 학습활동 과제에 따라 진행된 '모의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습 활동]
 다음 상황을 보고, 양측 대표의 역할을 맡아 협상을 해 보자.
 한 식품 가공 회사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농업 기반 도시인 ○○시로 공장을 확장하여 이전하기 위해 시청과 협상하려 한다. 회사 측에서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전 허가를 받으려 하고, 시청 측에서는 공장 이전을 허가하되 그로 인한 피해를 줄이면서 주민 소득을 늘리려 한다.

[모의 협상]
 회사 측: 저희 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에 관심이 많으실 테니 그 문제부터 다루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공장을 확장 이전하자면 전체 직원 수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지역 주민만으로 충원하겠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분명히 지역에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전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측: 저희가 걱정하는 건 공장 하수로 인해 하천 오염 및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 전에 이에 대한 대책부터 듣고 싶습니다.
 회사 측: 예, 공장을 이전하면서 최신 하수 처리 시설을 완비할 예정인데, 하수 배출 관련 규정에 제시된 것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정화 및 탈취 처리를 하겠습니다.
 시청 측: 좋습니다. 하수 처리가 철저하게 된다면 공장 이전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제안하셨던 내용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역 주민 채용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가 늘긴 하겠지만 주민 다수가 공장 이전의 효과를 체감하기엔 제시하신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말씀하신 채용 인원을 세 배 늘려 주십시오.
 회사 측: 그러려면 공장 이전과 동시에 기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전체 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곤란합니다. 대신 채용 인원을 점차 늘려 5년 후에는 현재 채용 예정 인원의 두 배가 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략)

[정답률 96.6%]

41) '회사 측'의 발화 의도를 고려할 때,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자신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 ② ㉠은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에게 수용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 ③ ㉠은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발화이고, ㉡은 자신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이다.
- ④ ㉠은 상대방과의 관계 개선에 초점을 둔 발화이고, ㉡은 상대방과의 정보 공유에 초점을 둔 발화이다.
- ⑤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는 발화이고, ㉡은 상대방과의 의견 차이를 탐색하려는 발화이다.



정답과 해설

- 1) ⑤ [고3 21년 06월 평가원 38번 / 정답률 92.0%]
- 2) ④ [고3 21년 06월 평가원 39번 / 정답률 94.0%]
- 3) ⑤ [고3 21년 09월 평가원 41번 / 정답률 89.0%]
- 4) ⑤ [고3 20년 06월 평가원 5번 / 정답률 83.8%]
- 5) ② [고3 20년 09월 평가원 4번 / 정답률 89.4%]
- 6) ⑤ [고3 20년 12월 수능 4번 / 정답률 95.6%]
- 7) ② [고3 19년 06월 평가원 7번 / 정답률 87.8%]
- 8) ④ [고3 19년 09월 평가원 4번 / 정답률 93.0%]
- 9) ② [고3 19년 11월 수능 5번 정답률 89.4%]
- 10) ① [고3 18년 06월 평가원 A형 5번 / 정답률 83.4%]
- 11) ② [고3 18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 정답률 73.7%]
- 12) ⑤ [고3 18년 11월 수능 6번 / 정답률 82.3%]
- 13) ③ [고3 18년 11월 수능 6번 / 정답률 57.7%]
- 14) ② [고3 17년 06월 평가원 A형 4번 / 정답률 90.6%]
- 15) ② [고3 17년 09월 평가원 A형 7번 / 정답률 89.3%]
- 16) ③ [고3 17년 11월 수능 A형 4번 / 정답률 91.7%]
- 17) ④ [고3 17년 11월 수능 A형 4번 / 정답률 84.5%]
- 18) ① [고3 16년 06월 평가원 A형 4번 / 정답률 87.4%]
- 19) ⑤ [고3 16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 정답률 78.7%]
- 20) ④ [고3 16년 11월 수능 A형 3번 / 정답률 84.2%]
- 21) ④ [고3 16년 11월 수능 A형 3번 / 정답률 85.4%]
- 22) ③ [고3 15년 06월 평가원 A형 1번 / 정답률 92.6%]
- 23) ① [고3 15년 06월 평가원 B형 1번 / 정답률 92.6%]
- 24) ⑤ [고3 15년 09월 평가원 A, B형 1번 / 정답률 91.4%]
- 25) ③ [고3 15년 09월 평가원 B형 3번 / 정답률 84.4%]
- 26) ② [고3 15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 정답률 88.2%]
- 27) ④ [고3 15년 11월 수능 1번 / 정답률 81.8%]
- 28) ③ [고3 14년 06월 평가원 A형 3번 / 정답률 77.5%]
- 29) ④ [고3 14년 06월 평가원 B형 1번 / 정답률 81.9%]

- 30) ② [고3 14년 09월 평가원 A형 4번 / 정답률 89.2%]
- 31) ③ [고3 14년 09월 평가원 B형 3번 / 정답률 94.0%]
- 32) ⑤ [고3 14년 09월 평가원 B형 3번 / 정답률 92.3%]
- 33) ① [고3 14년 11월 수능 A형 1번 / 정답률 81.6%]
- 34) ④ [고3 13년 06월 평가원 B형 3번 / 정답률 89.7%]
- 35) ② [고3 13년 06월 평가원 B형 4번 / 정답률 94.3%]
- 36) ② [고3 13년 09월 평가원 A형 3번 / 정답률 92.6%]
- 37) ⑤ [고3 13년 09월 평가원 B형 1번 / 정답률 94.7%]
- 38) ② [고3 13년 09월 평가원 A, B형 4번 / 정답률 92.9%]
- 39) ④ [고3 13년 11월 수능 A형 1번 / 정답률 94.7%]
- 40) ① [고3 13년 11월 수능 A형 3번 / 정답률 93.0%]
- 41) ③ [고3 13년 11월 수능 B형 2번 / 정답률 96.6%]

